

석사학위논문

초등미술에서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 꾸미기·만들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김 지 혜

2001년 8월

초등미술에서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 꾸미기 · 만들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방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출자 김 지 혜

김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초 록〉

초등미술에서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 꾸미기 · 만들기를 중심으로 -

김 지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방 회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개인의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거나 합리적 · 과학적 수리력을 육성하는데만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갈 어린이들은 자칫 물신주의에 빠지기 쉬운 기계문명에 대응하여 문화 · 예술적인 생활의 가치를 깨닫고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교육은 예술적 기능성은 물론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표현욕구를 충족시켜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디자인이란, 어떠한 목적성을 지닌 물건을 실용성과 더불어 미적 아름다움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 · 구성하여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다. 즉 인간의 생활이나 문명의 발달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학과 예술, 인간의 창의성이 공존하는 이념으로 발전되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며 쓸모 있게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살아나가는데 요구되는 창의력과 다양한 경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미술수업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표현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 299명과 교사 172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디자인 지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안하여 보았다.

첫째, 디자인 학습을 포함한 미술학습 자료 확보에 교사와 학교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아동의 의욕이나 작업활동은 물리적 환경에 많이 좌우되므로 풍부한 재료와 참고 자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교사의 노력과 학교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미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의 관심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관심과 아동의 의욕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리기 영역이외에도 디자인 영역, 그 이외의 미술활동 영역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 부모의 참여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면 훌륭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미술과 연수 기회가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미술에 대한 교사들의 흥미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미술분야에 소질과 지도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은 현실에서 자질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다양한 표현 활동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학교·사회 주최의 꾸미기·만들기 대회를 많이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한된 교실에서 교과서나 빈약하고 획일적인 자료에 의해 창의성이란 이름 아래 방임에 가까운 미술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자연 환경을 많이 접하게 하며, 다양한 재료의 접근과 표현 방법, 기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탐색과 풍부한 경험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사의 체계적이고 성실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꾸미기·만들기라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사회나 교육 현장에서 그리기만을 중시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꾸미기·만들기 대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와 감상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아동의 솜씨 유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만들고 꾸미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작품을 많이 게시하고 학급이나 학교의 전시회 등을 많이 개최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표현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남의 작품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료를 탐색하게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재발견하고 응용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오늘 날, 공예와 디자인 교육만을 다룬 교과서를 따로 발행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디자인교육은 국제적 경쟁 시대에서 중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는 창의력 함양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아동들의 디자인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미술수업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장차 이 세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세대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3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디자인과 디자인 교육 | 4 |
| 2. 우리 나라 디자인 교육의 변천과정 | 6 |
| 3.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 8 |
| 4. 고학년의 디자인(꾸미기, 만들기) 지도 | 11 |
| III. 미술수업의 실태분석 | 15 |
|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 16 |
| 2. 설문지를 통해 본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의 실태 | 21 |
| IV. 결론 및 제언 | 49 |
| 1. 결 론 | 49 |
| 2. 제 언 | 51 |
| 참고문헌 | 53 |
| 〈Abstract〉 | 55 |
| 〈부 록〉 | 58 |

〈표 목 차〉

| | |
|----------------------------------------------------------------------|----|
| 〈표 -1〉 학년별 목표 | 16 |
| 〈표 -2〉 디자인 영역의 시간 수 | 16 |
| 〈표 -3〉 4학년에서의 지도내용 | 17 |
| 〈표 -4〉 5학년에서의 지도내용 | 18 |
| 〈표 -5〉 6학년에서의 지도내용 | 19 |
| 〈표 -6〉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사) | 21 |
| 〈표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 | 22 |
| 〈표 -8〉 미술과 연수 경험 | 23 |
| 〈표 -9〉 연수를 받은 연수과목 | 24 |
| 〈표-10〉 미술수업의 자신 정도 | 25 |
| 〈표-11〉 미술 수업 시 자신이 없는 이유 | 25 |
| 〈표-12〉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 26 |
| 〈표-13〉 미술과의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물 | 27 |
| 〈표-14〉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표현 영역 | 28 |
| 〈표-15〉 아동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재미있게 꾸미기·만들기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자료 | 29 |
| 〈표-16〉 꾸미기·만들기 활동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 29 |
| 〈표-17〉 꾸미기·만들기 시간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단계 | 30 |
| 〈표-18〉 꾸미기·만들기 학습 지도방법 | 31 |
| 〈표-19〉 교실환경 구성 시 아동들의 참여 권장 | 32 |
| 〈표-20〉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꾸미기·만들기 작품 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 33 |
| 〈표-21〉 꾸미기·만들기 지도를 위한 연수기회 참여 의사 | 34 |
| 〈표-22〉 현행 미술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 | 35 |
| 〈표-23〉 미술시간의 선호도 | 36 |

| | |
|--------------------------------------------------|----|
| 〈표-24〉 미술시간에 작품을 만들 때 자신감 | 37 |
| 〈표-25〉 가장 선호하는 활동 | 38 |
| 〈표-26〉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가장 만족했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경우 | 38 |
| 〈표-27〉 가장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은 재료 | 39 |
| 〈표-28〉 꾸미기·만들기 시간의 구상활동(스케치) 방법 | 40 |
| 〈표-29〉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작품을 만든다면 가장 재미있는 경우 | 41 |
| 〈표-30〉 미술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같게 만든 경험 정도 | 42 |
| 〈표-31〉 미술시간에 희망하는 지도주체 | 43 |
| 〈표-32〉 교실 환경 구성 시 참여 정도 | 44 |
| 〈표-33〉 만들기를 다한 후 작품 보관 방법 | 45 |
| 〈표-34〉 부모님이 미술 활동 시 중요시 하는 부분 | 45 |
| 〈표-35〉 자신의 공부방 꾸미기 경험 정도 | 46 |
| 〈표-36〉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부분 | 47 |
| 〈표-37〉 평소 실내 꾸미기나 의상(옷)색깔이나 무늬 등에 관심 정도 | 48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얻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가치의 획득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며, 더욱이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유있게 하도록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나 합리적, 과학적, 수리적인 사고의 육성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가장 올바른 경험은 미의 경험 뿐”²⁾ 이라고 한 플라톤(Platon)이나 “감성과 이성, 자연과 정신과의 조화와 균제를 이룩하는 것이 예술”³⁾ 이라고 한 쉴러(Schiller)는 이미 조화로운 인간 교육이 미술을 통해 가능함을 시사해 주었다.

아동의 생각은 매우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다양한 대상에 호기심을 갖는다. 아동은 어릴 때부터 강요되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이나 개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술 교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교사 자율성의 폭과 수업진행방법과 내용에 따라 미술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사고력, 작품 성취 수준 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별 어려움 없이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미술은 좋아하는 과목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아동은 손에 무엇을 잡을 수 있는 파악 능력이 생기면서 손에 잡히는 대상들의 남겨진 흔적을 보고 즐거워하며 물감, 붓, 크레파스, 찰흙, 수수깡 등 여러 가지 미술 재료에 관심을 나타내며 이러한 미술재료와 도구를 만져봄으로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1) 박주영 외 3인(1986), 「미술교육」, 형설출판사, p.230

2) 정순욱(1974), 「예술교육론」, 교육과학사, p.89

3) 정순욱(1974), 상계서, p.94

미술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표현이 대부분 수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미술표현의 특징에 있어 로웬펠드(V.Lowenfeld)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인 4-6학년 즉, 10-12세는 미술표현이 가장 침체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의 발달과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창의적 표현을 기피하고 미술에 대한 흥미도도 낮아지게 된다”⁴⁾라고 하였다.

꾸미기와 만들기는 어떠한 목적을 지닌 물건을 실용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충족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꾸미고 만드는 일이다.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제작활동은 물건의 생산보다는 ‘발견’에 있다. 즉, 형태를 만드는 가운데 그 기능의 특징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꾸미기와 만들기 활동은 우리의 생활주변의 평면, 입체, 공간적인 기능 형태의 발견에 그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재료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과 가정이나 학교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꾸미기와 만들기는 그러한 재료들의 잠재적인 기능 형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형태화 시키는 태도와 기능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에 대비한 창의력 함양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세계화의 시점에서, 이 중요한 시기의 아동들에게 조화로운 활동을 유도하며 꾸미기·만들기 영역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디자인능력 신장과 자유스러운 표현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들의 흥미를 고조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미술수업 운영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술과에서의 꾸미기·만들기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미술교재편찬회(1985), 「아동미술교육」, 학문사, p.151

5) 오홍중(1984),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꾸미기와 만들기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p.8

첫째, 꾸미기·만들기 지도와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미술교육에 관한 일반적 이론, 디자인 교육과 어린이의 조형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둘째,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꾸미기와 만들기 영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 그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교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꾸미기·만들기 수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디자인 수업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첫째, 본 연구의 기초조사는 당해 연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담임과 미술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기초를 하여 분석을 하였다.

둘째, 디자인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분석과 지도내용분석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미술과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셋째, 제주도내 4,5,6 학년을 설문 대상 학년으로 정하고 1개 시와 2개 군의 14개 학교를 표집 대상학교로 정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 미술지도 전반에 관한 자작 질문지라는 제한성을 갖는다

넷째, 디자인이란 말은 디자인과 공예가 포함하는 말로, 초등학교에서는 꾸미기와 만들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근무하는 교사 172명과 4, 5, 6학년 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반드시 제주도 전체의 교사와 아동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디자인 교육 전반에 대해 탐색해 보고 디자인 교육, 창의성과 디자인 교육, 디자인 교육의 변천과정을 탐색해 보고 관련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요약해 보았다.

1. 디자인과 디자인 교육

1) 디자인이란

오늘날, 미술과 지도 학습의 현실이 디자인이나 조형영역의 지도가 극히 소홀하며, 거의가 물감·크레파스 중심의 평면적 그리기 영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보편화되고, 용도가 같은 많은 물건이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옴에 따라 상품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에 대한 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상품과 따로 분리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디자인이란 넓은 의미로는 “회화의 태생에서부터 기계나 건축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형활동에 대한 계획”⁶⁾을 뜻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행위, 그것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있었다고 생각되나 이 말이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20-1930년대의 소위 모던 디자인 성립 이후의 일이다. 물론 고대인이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구를 만든다든가 건물을 세우는 등의 기술적 행위에는 반드시 그 이미지나 계획에 일에 앞서 존재했다는 것에는 틀림없었다. 디자인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하며 ‘표시한다·표현하다·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⁷⁾

6) 김삼량(1992),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p.246

7) <http://kr.encycl.yahoo.com>

“한자어로는 의장(意匠)이라는 말이나 도안(圖案)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물건을 만들기 이전의 여러 가지 생각이 평면에서 입체화 될 때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연구하고 계획한다는 것”⁸⁾을 뜻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해석은 시대나 그 대상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1919년 독일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Bauhaus)운동 이래 디자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며 “아이디어(idea)에서 제작품이 완성되는 제반 조형과정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⁹⁾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사회가 진보, 발달함에 따라 과거의 수공업 형태에서 벗어나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계획·노동·생산·분배 등 분업화와 복잡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18세기부터는 산업혁명 이후 기계발달에 따라 생활용품이나 필수품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제품의 모체에 신중한 계획과 준비를 하게끔 되었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과거와 같이 어떤 대상을 고안하는 아이디어(idea)의 영역이나 외부의 치장이나 무늬를 담당하는 역할에서 떠나 넓은 의미로 조형 전 영역의 실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셈”¹⁰⁾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디자인의 역할이란, 계획·건설과 생산·소비과정 전반에 걸쳐 접근되지 않는 분야가 없으리만큼 광활하다 할 수 있겠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공예와 디자인 교육(입체조형)만을 다룬 교과서를 국가에서 따로 발행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디자인 교육은 국제 경쟁 사회에서 중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2) 디자인 교육

어린이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심신발달을 돕고 문화를 전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와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한, 사회의 모든 생활양식에 그저 적절하게 적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생활을 어린이로 하여금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의 태도와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디자인 활동은 크게 “표현활동(表現活動)과 적응표현(適應表現)

8) 이견호(1987). 「디자인통론」, 유림문화사, p.11

9) 김삼량(1992). 전계서, p.246

10) 미술교육편찬회(1988). 「미술교육」, 학문사, pp.190-191

의 과정으로 양분”¹¹⁾되는데 ‘그리고 싶다. 장식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와 ‘아름답고 느낌이 좋다’라는 두 가지의 기능적 요소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디자인은 본래 실용성을 전제로 하지만 교육의 단계에서는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감동에 기인한 자유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디자인의 기초연습과 같은 활동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제작’활동은 형태(물건)의 생산보다는 ‘발견’에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생활 주변의 평면·입체·공간적인 형태에서부터 가능성을 발견해야 하고 가정이나 학교 주변의 여러 재료를 알맞게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잠재적 기능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태도와 기능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¹²⁾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디자인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발달과정이나 학습내용으로 보아 꾸미기와 만들기를 디자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이란 용어보다 꾸미기와 만들기라는 말이 더 쉽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디자인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그들의 숨겨져 있는 유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린이들의 흥미유발을 위하여 조형활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구성이나 꾸미기에서 감각을 기르고, 공간의 특징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을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조가 단순한 물건을 쓸모 있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지도하는데 디자인 교육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21세를 바라보는 디자인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미술교육이 되어 국제 경쟁 사회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어린이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 나라 디자인 교육의 변천과정

사회가 진보, 발달함에 따라 분업화와 복잡화가 촉진되었고 산업혁명 이후 산업문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디자인 교육이 특히 강조되었는데 1919년 독일의 그로피

11) 박주영 외 3인, 전제서, p.372

12) 양수원(1996), 「조형능력신장을 위한 국민학교 디자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8

우스(Gropius)에 창설된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¹³⁾가 바로 그 대표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의 교육¹⁴⁾은 인간형성과 조형문화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단순한 노작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료와 표현기법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감각의 조형품을 만들어내는 실용성과 심미성,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초등미술교육에 있어서 “과거 1950년대에는 미술, 공작으로 그리기와 만들기를 위주로 하는 활동이 미술교육의 전부였으며, 1955년에 개정 공포된 제1차 미술과 교육과정(1954-1963)속에 ‘공작’이라는 영역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¹⁵⁾, “1963년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이 개정되면서 꾸미기 교육이 추가”¹⁶⁾되면서 미술교육에 있어서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쓰기, 감상 등 5개 영역으로서 구성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는 한국의 산업디자인 발전에 여러 특기한 사항들이 점철된 시기이다. 또한 교육계는 응용미술시대에서 디자인의 본령(本領)을 찾는 전문교육시대로 전환, 각 대학에서 산업디자인교육이 실현되기 시작한 때이며, 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정책에 힘입어 활발한 생산활동을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¹⁷⁾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에서는 미술과의 각 영역을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 등 6개 영역으로 구성”¹⁸⁾하였으며, 꾸미기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대학에 미술과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가 증설되면서 산업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가 활발”¹⁹⁾해졌고, 미술교사들은 자연히 창의력 신장을 위한 디자인 교육과 자유스러운 미술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제 4차 교육과정(1981-1987)²⁰⁾에 있어서는 미술과 각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는데, 조형놀이, 회화, 조소, 꾸미기와 만들기, 서예, 감상 등 6개 영역으로 하여 저학년은 통합학습으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하여 즐거운 생활로 명칭을 개칭, 통합 학습으로 실시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1987-1992)²¹⁾에서는 ‘모양과 환경 꾸미기, 쓸

13) 바우하우스(Bauhaus): 1919년 Walter Gropius가 독일에 창립한 건축·조형학교

14) 김삼량(1992), 전계서, p.19

15) 오홍종(1984), 전계서, p.4

16) 김삼량(1992), 전계서, p.19

17) <http://kr.encycl.yahoo.com>

18) 이규선 외 2명,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pp.282-283

19) 윤양희 공저(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p.467

20) 윤양희 공저(1994), 상계서, p.467

모를 생각하여 만들기'로 구성되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1992-)에서는 다시 '꾸미기와 만들기'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 현장은 지금도 입시 주위의 교육에 편승하여 단편적인 이론과 그리기 위주의 실기 교육에 치우치고, 창의성이나 개성이 바탕이 되는 조형교육이나 디자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짙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 세기에 들어서서 미술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유표현과 인간주의적 미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정의적 인격형성에 충실해야 하며 디자인교육을 통한 창의성·개성의 함양과 심미적이고 자주적인 인간형성을 위한 전인교육의 방향으로 유도되어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1) 디자인교육의 중요성

옛날처럼 어린이가 자연과 더불어 자랄 수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손으로 만지고, 만들고, 꾸미고 하는 꾸미기, 만들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사회와 학교부터가 지적인 교육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의 탐색활동과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 미술교육은 아동의 창의성과 개성의 계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있으며, 산업문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디자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꾸미고 만들고 생각하는 것을 체질화시켜야 하며 기술과 창의성을 연결시켜 나아가게 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더욱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생리-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본시 조화로운 존재라는 것은 뇌 생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데 일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대뇌를 똑같은 좌우 모양

21) 이규선 외 2명, 전계서, pp.282-283

과 크기를 한 두 개의 반구가 하나로 연결된 지극히 조화로운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의 대뇌는 합리적이고 지적인 왼쪽 두뇌와 정서적, 기능적인 오른쪽 두뇌가 각각 제각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긴밀히 상호 작용하여 서로를 보완하도록 기능 한다는 것이다.²²⁾

교육의 기본 목표인 합리적·정서적으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술교육에서는 정서적이고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꾸미기·만들기를 충분히 지도함으로써 왼쪽 두뇌의 발달에만 크게 치우친 오늘의 어린이의 왜곡된 발달을 바로잡아서 정서적, 운동 기능적인 면을 온전하게 보완·조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참다운 어린이의 조화적 성장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2) 디자인(꾸미기, 만들기) 지도의 목표

오늘날 디자인은 현대의 대량 생산과의 연관성이 깊어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하기에 이르렀으며, 현대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에서부터 산업 제품 등 여러 방면에 이르기까지 접목되어져 중요시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회가 디자인 교육에 요구되는 내용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되었는데, “상업 디자인, 공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복식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 어느 것이나 인간의 생활을 보다 합리적으로 풍요롭게, 합리적으로 살기 좋게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²³⁾되어 있다.

어린이들에게 꾸미기, 만들기를 지도하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김춘일·손영수는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지각의 발달 기능이다. 어린이의 인지와 정서발달이 외부세계에 대한 원만하고 충분한 지각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시지각의 발달, 즉 관찰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꾸미기, 만들기 지도는 기초적인 미술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22) 안영기·김춘일(1990),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pp.201-205요약

23) 김삼량(1992), 전개서, p.246

둘째, 손의 기능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어린이가 한두 살될 때부터 손 놀이를 시켜왔다. 젓먹이 때부터 손과 눈의 협응심을 기르고 손가락 기능의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인지의 발달이다. 우리는 꾸미기,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환경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수용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보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지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창의성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 속에서 의도적으로 교육을 해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런 바탕이 있어야 나중에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생활전반에 서광처럼 다시 빛나는 것이다.

다섯째, 주의 집중력 신장을 들 수 있다. 꾸미기, 만들기를 통해서 인지활동과 노작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주의 집중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어린이는 근면, 노력, 탐구, 인내를 배우며, 결과가 성취되었을 때 기쁨을 맛보게 된다.

여섯째, 표현력의 발달이다. 꾸미기와 만들기는 어떤 의미나 쓸모 있는 모양이나 물건의 형태와 결부시켜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성을 추구한다.

일곱 번째, 긍정적 시각의 형성이다. 어린이가 꾸미기와 만들기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확고한 긍정적 자아의식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여덟 번째, 미적 정서의 발달이다. 어린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순화시키며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태도와 감정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꾸미기와 만들기 교육은 어린이의 미적 정서 함양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홉 번째,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성인이 되어 미적 풍요로움을 영위하고 여가 선용,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을 기른다는 점에서 꾸미기·만들기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²⁴⁾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디자인의 표현방법은 현대문명 속에서 나날이 변모하고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생활에 비추어 디자인 교육이 어떤 사명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린이들에게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24) 김춘일·손영수(1996), 「재미있는 조형놀이」, 미진사, pp.15-17요약

4. 고학년의 디자인(꾸미기, 만들기) 지도

1) 아동의 조형 발달단계

미술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육을 성취하자면 먼저 아동의 성장변화에 따른 표현의 발달단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미술의 발달단계를 아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이 미술활동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미술 활동에 따른 동기, 과정, 결과를 관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발달 심리학자나 미술교육학자들 사이에 연구된 많은 학설이 있지만 그 중 어느 것 하나를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는 로웬펠드(V.Lowenfeld)²⁵⁾의 발달단계를 6단계로 분류하고 간단히 그 특징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난화기(亂畫期, 2-3세)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그린다는 것보다 손의 근육운동과 그 결과로 생겨난 선들을 발견하고 즐기며, 그것이 발전되면서 회전형태가 나타나고 자유로운 율동으로 진행된다.

2단계 -- 전도식기(前圖式期, 5-7세)

처음으로 의식적인 발달단계로 접어들며 선이나 원을 가지고 여러 형태를 그려내는 창조적 시기이다.

3단계 -- 도식기(圖式期, 7-9세)

독자적인 도식을 만들기를 즐기며 중요한 부분을 확대, 과장하여 그리고 기저선을 그리기 시작하며, 공간적 시간적 동시표현이 나타난다.

4단계 -- 유희기(遊戲期, 9-11세)

형태적 사실기라고 하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그림을 그리는데 대담성이나 자신감을 잃기 쉽다.

5단계 -- 의사실기(疑寫實期, 11-13세)

논리적 사고의 증가로 지적인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운동감에 대한

25) 로웬펠드(V.Lowenfeld, 1903-1961, 오스트리아) 미국의 적응적 미술교육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킨 교육학자

묘사가 풍부해지고 완성 작품을 중요시한다.

6단계 -- 사춘기(思春期, 13세 이후)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는 아동이 많아지며, 사실적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적 공간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공간에서의 크기, 색채, 명암, 원근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²⁶⁾

2) 초등학교 고학년의 디자인 지도

아동의 성장과정에는 과정마다 그들의 특징이 있듯이 아동미술의 발달단계도 과정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로웬펠드(V.Lowenfeld)의 발달단계 중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11세- 13세)에 해당하는 유희기(여명기)와 의사실기를 중점적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그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여명기(또래 집단기, 9~11세)

'형태적 사실기'라고도 하며,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다. 또래와 어울리며 자기를 인식하고 남을 의식하며 형태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²⁷⁾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시지각(視知覺)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므로 거의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물을 관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대담성이나 자신감을 잃게 되기 쉽다. 디자인에서는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재료의 기능을 나타내는 면에서도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느끼며 표현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지도 방법으로는 이 시기 아동들을 인정해주고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해보도록 지도하며 개성적인 표현에 유의시킨다. 화면구성에 의한 계획적인 표현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색채사용능력을 길러주어 색상의 조화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며 표현욕구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재료가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지도해야 한다.²⁸⁾

어린이들이 관심 있는 것으로 발달단계에 맞게 그들의 놀이에 쓰이는 것이나 생

26) 양경희(1998), 「21C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교육」, 학지사, pp.20-21

27) 양경희(1998), 「21C를 위한 열린 아동미술교육」, pp.38-40

28)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pp.168-192

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선하여 만들도록 지도하여야 창의적인 표현 의욕을 갖게 되어 디자인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진다.

디자인에 대해 형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료를 만지작거리는데 그 재료의 특성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미적 감각과 연관되어 작품활동에 활용케 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며, 자연 소재의 재료를 많이 접하도록 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사고를 자극하는 지도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늘 생활하는 경험 속에서 나온 꾸미기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2) 의사실기 (11~13세)

이 시기의 아동들은 논리적 사고의 증가로 지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지각(知覺)이 발달하는 때이다. 모든 묘사는 운동감이 풍부해지며 3차원적인 입체 표현이 가능해 지며 표현 과정보다 오히려 완성된 작품에 대해 중요도가 높아진다.²⁹⁾

고학년에서는 표현활동에서 순서나 계획성이 중학년 때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꾸미려는 목적과 기능을 생각하며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꾸미고 계획성 있는 표현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³⁰⁾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해당되며, 미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점차 성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며 또래의 요구에 따르는 시기이다. 또, 이 시기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 개인차는 신체적인 차이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머지않아 사춘기에 들어서면 성인세계와 관련하여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발달단계에서 미술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다양한 재료를 기능적으로 훌륭하게 사용하는 예로서 산업제품들에 대해 알아야 하고 주방용품, 가구에서부터 유선형 자동차나 기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재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³¹⁾

어린이 각자의 개성 발달을 도와주고 정서와 표현욕구를 표출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이나 형태를 만들어내는 즐거움

29) 양경희(1998), 전계서, pp.38-40

30) 오홍종(1984), 전계서, p.32

31)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pp.168-192

을 느끼도록 수집된 모든 유형의 재료들을 그들이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아동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사고를 자극하는 것, 의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깊이 있는 표현을 자극하는 것 등은 모두 예쁜 완성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아동의 심리와 정서, 발달단계 등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미술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하여 확산적 사고를 펼침으로써 미적 감각과 심미적 사고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Ⅲ. 미술수업의 실태분석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³²⁾

이에 바탕이 되는 초등학교에서의 미술과 목표는 조형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다. 즉,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즐겁게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우리 나라의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애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다.³³⁾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개정 될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요구를 반영한 교과내용 구성 체제와 더불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였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교과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조형활동의 즐거운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의성을 기르고 우리의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하는데 미술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꾸미기·만들기 지도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만들거나, 만드는 가운데 조형적 기초능력을 기르도록 했으며, 5·6학년에서는 단순한 관심에서 발전하여 깊이 생각하고 구상하여 꾸미거나 만들되, 특히 6학년에서는 효과적인 구상능력과 기능·재료의 효과적인 활용지도 방법까지도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인으로써 인간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디자인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디자인에 관한 교육과정운영 및 활용, 교사들의 디자인교육에 관한 관심과 인식도, 디자인 교육 지도 실태, 아동들의 디자인 교육에 관한 흥미도와 관심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2)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한국교육개발원, p.6

33) 박병선(1987),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 교육과학사, p.342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1) 학년별 목표

초등학교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전학년에 걸쳐 쓸모와 아름다움에 역점을 두어 디자인의 조건에 충실하려는 뜻을 담고 있고, 순수 미술에 의한 창조적, 정서적 생활은 물론 실용적인 미적 생활환경의 창조를 도모하려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³⁴⁾

〈표-1〉 학년별 목표

| 학년 | 목 표 |
|----|----------------------------------------------------------------------------------------------------------------------------------|
| 4 | 1) 모양과 색의 변화 등을 생각하여 꾸미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한다. 2)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용구로 꾸미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 5 | 1) 여러 가지 모양의 색과 변화 등을 이해하게 한다. 2) 알리는 목적에 맞는 형과 색을 꾸밀 수 있게 한다. 3) 만드는 방법에 적당한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 |
| 6 | 1) 색과 모양, 형태의 특성과 변화를 이용하여 목적에 맞게 창의적으로 꾸미거나 만들게 한다. 2) 재료와 용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3)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자료: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4, 5, 6」, 한국교육개발원, pp.31-39

2) 미술교과배정시간에 대한 디자인 영역의 시간 수

〈표-2〉 디자인 영역의 시간 수

| 구분 \ 학년 | 4 | 5 | 6 | 계 |
|-----------------|---------|---------|---------|---------|
| 미술교과의 시간 수(연간) | 64 | 64 | 64 | 192 |
| 디자인영역의 시간 수(연간) | 18(25%) | 18(25%) | 18(25%) | 54(25%) |

자료: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4, 5, 6」, 한국교육개발원, pp.22-23

34) 양수원(1996), 「조형능력신장을 위한 국민학교 디자인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3) 학년별 지도내용

4학년이 되면 아동은 조형의 기본적인 요소인 형과 색을 이해하고 간단한 평면 혹은 입체구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아동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를 깨닫고 이를 활용할 기회를 마련하여 미술과 생활을 연결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표-3〉 4학년에서의 지도내용

| 구분 학년 | 학 습 주 제 | 지 도 내 용 |
|----------|--------------------|------------------------------------------------------------------------|
| 4학년 | 색의 느낌을 생각하여 꾸미기 | ○ 배색에 따른 느낌을 알고 아름다운 무늬 꾸미기 ○ 모양의 배치와 배색의 아름다움 느끼기 |
| | 모양을 생각하여 꾸미기 | ○ 색종이나 색상지, 털실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꾸미기 ○ 여러가지 재료로 효과적인 표현방법 생각하기 |
| | 염색하여 꾸미기 | ○ 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들여 무늬 꾸미기 ○ 물들인 무늬모양에서 아름다움 발견하기 |
| | 실내환경 꾸미기 |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공간 장식물 만들기 ○ 모빌과 장식품을 공간 속에 매달거나 붙여서 장식하기 |
| | 알리는 것 꾸미기 | ○ 의도가 잘 나타나도록 알리는 것 꾸미기 ○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단순화하고, 배색의 효과를 살려 꾸미기 |
| | 모자 만들기 | ○ 재료의 특성을 살려 재미있는 모양의 모자 만들기 ○ 여러 가지 모자의 특징을 알고 꾸미기 |
| | 꽃만들기 | ○ 색과 모양의 통일과 변화를 생각하여 아름답게 꽃 꾸미기 ○ 색종이를 다루는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하기 |
| | 가방만들기 | ○ 쓸모를 생각하여 가방 만들기 ○ 재료와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모양의 가방만들기 |

자료: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4」, 한국교육개발원, pp.22~24

교육부(1996), 「미술 4」, 한국교육개발원, pp.3~27

5학년에서는 기능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환경,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전체적인 공간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형미를 직접 생활에 응용하는 미적 감각을 기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표-4〉 5학년에서의 지도내용

| 구분 학년 | 학 습 주 제 | 지 도 내 용 |
|----------|---------------|------------------------------------------------------------------|
| 5학년 | 색의 성질을 알고 꾸미기 | ○ 색의 3속성 알고, 색의 느낌 알기 ○ 여러 가지 사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켜 무늬로 꾸미기 |
| | 포장지, 포장용기 만들기 | ○ 포장지와 포장용기의 무늬를 독창적이고 다양하게 꾸미기 ○ 재료와 용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 | 마크, 문자 꾸미기 | ○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마크와 문자를 아름답게 꾸미기 ○ 마크와 문자를 간략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
| | 선전탑 꾸미기 | ○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선전탑 꾸미기 ○ 재료의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선전탑 꾸미기 |
| | 생활에 필요한 것 만들기 | ○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 ○ 전통공예품의 아름다움과 특징 알기 |
| | 연만들기 | ○ 여러 가지 전통 연의 특징을 살려 연 만들기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의 특징을 살려 연 만들고 꾸미기 |
| | 유리창 꾸미기 | ○ 유리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과 분위기에 맞게 꾸미기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
| | 환경 꾸미기 | ○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학교, 공원, 마을 등을 꾸미기 ○ 조형물의 특징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꾸미기 |

자료: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5」, 한국교육개발원, pp.23~25
 교육부(1996), 「미술 5」, 한국교육개발원, pp.4~28

6학년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재료선택과 용구사용 등의 지도를 통하여 직접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장식품을 만들게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적 감각을 기르도록 지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디자인 교육은 쓸모 있게 만들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주제표현에 유의하여 아름답게 만들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실제적인 쓸모를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으므로 표현하려고 의도했던 내용을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 교육에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다양하고 의도적인 현장학습 등을 통한 시각적 체험이나 감상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5〉 6학년에서의 지도내용

| 구분 학년 | 학 습 주 제 | 지 도 내 용 |
|----------|-----------------|-------------------------------------------------------------------------------------------------------|
| 6학년 | 색의 성질을 이용하기 | ○ 유채색과 무채색을 알고 무늬 꾸미기 ○ 여러 가지 색의 성질과 배색 이해하기 |
| | 벽면 꾸미기 | ○ 기본형을 조합하여 단위 무늬를 꾸미고 연속적인 형태 의 무늬 꾸미기 ○ 재료의 특성과 배색의 효과를 살려 아름다운 무늬 꾸 미기 |
| | 무대 꾸미기 | ○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무대 꾸미기 ○ 무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 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
| | 장신구, 장식품 만들기 | ○ 주변의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쓸모 있 는 장신구와 장식품 만들기 ○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재료를 탐색하여 쓰임에 맞고 사용이 가능한 물건 만들기 |
| | 포스터 그리기 | ○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포스터 그리기 ○ 전달 내용에 알맞은 문자를 꾸며 포스터 그리기 |
| | 신문 꾸미기 | ○ 소식을 알리는 신문을 협동하여 꾸미기 ○ 글과 그림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읽기 좋고 아름 다운 신문 구성하기 |
| | 염색하여 꾸미기 | ○ 형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들여 아름다운 무늬 꾸미기 ○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의 특징을 살려 재미있는 무늬 꾸미기 |
| | 탈 만들기 | ○ 재료의 특징을 살려 재미있는 모양의 탈 만들기 ○ 전통탈의 유래와 쓰임을 알고 생각과 표정을 담고 있는 탈 만들기 |

자료: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6」, 한국교육개발원, pp.23~25

교육부(1996), 「미술6」, 한국교육개발원, pp.4~27

4) 지도상의 유의점

(1) 4학년

손놀림이 발달하고 자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표현능력 뿐 아니라 방법에서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재료와 요구뿐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맞는 형태와 색을 선택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조형에 대한 기본개념을 아동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조형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⁵⁾

(2) 5학년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배치하거나 색채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통하여 아동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재료와 용구의 사용범위를 넓혀서 개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의 풍부한 생활경험이 필요하며 하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이나 지식을 꾸미기와 만들기에 연관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³⁶⁾

(3) 6학년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이해시켜 만들고 꾸미는 활동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조형물과 장식품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이나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관심을 갖게 한다.

또한 협동제작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고 협동제작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도한다.³⁷⁾

디자인은 생활을 위한 실용과 아름다움이 균형을 이루어, 주어진 목적에 대한 계획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기능적인 실체이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형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물로서의 실체가 디자인이다.³⁸⁾

디자인은 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을 세련되게 하고 미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현대와 같이 다양화·전문화·분업화 사회 속에서 필요 불가결한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발달단계를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며 표현욕구는 가장 왕성해지고 논리적 사고가 증가하여 입체적

35)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4」. 한국교육개발원. p.31

36)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5」. 한국교육개발원. p.34

37)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6」. 한국교육개발원. p.32

38) 정시화(1981). 「현대 디자인 연구」. 미진사. p.27

표현이 가능해지는 반면에, 미술표현은 저학년에 비해 침체되고 미술에 대한 흥미도도 이에 따라 낮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미술수업이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되는 현실에서 꾸미기와 만들기 영역이 자칫 아름다움보다는 쓸모에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으나, 미술지도 시 기능과 더불어 미(美)를 중요시하는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발달과정이나 학습내용으로 보아 꾸미기와 만들기에서는 조형개념을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모양 배치나 색채 변화를 통하여 목적과 기능에 맞는 작품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주변이나 가정, 이웃,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설문지를 통해 본 초등학교 디자인 교육의 실태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 중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6>과 같다.

<표 -6>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사)

| 구 |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학교 소재지 | 읍, 면 | 28 | 16.3 |
| | 시 | 144 | 83.7 |
| 성별 | 남 | 28 | 16.3 |
| | 여 | 144 | 83.7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61 | 35.5 |
| | 11년 ~ 20년 | 67 | 39.0 |
| | 21년 이상 | 44 | 25.6 |
| 담임학년 | 1학년 | 18 | 10.5 |
| | 2학년 | 18 | 10.5 |
| | 3학년 | 45 | 26.2 |
| | 4학년 | 39 | 22.7 |
| | 5학년 | 24 | 14.0 |
| | 6학년 | 28 | 16.3 |
| 연구교과 | 있음 | 65 | 37.8 |
| | 없음 | 107 | 62.2 |
| 계 | | 172 | 100.0 |

소재지별로는 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83.7%로 대부분이었고, 읍과 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16.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교사가 83.7%로 대부분이었고, 남자교사는 16.3%로 나타났으며, 교직경력별로는 경력이 11-20년인 교사가 39.0%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 35.5%, 21년 이상 된 교사는 25.6%로 나타났다. 담임학년별로는 3학년 담임 교사가 2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학년 22.7%, 6학년 16.3%, 5학년 14.0%,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교과별로는 연구교과가 없는 교사가 62.2%, 있는 교사가 37.8%로 연구교과가 없는 교사가 더 많았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을 소재지, 성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7>와 같다. 먼저 소재지별로는 읍, 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 51.5%,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 48.5%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아동 50.8%, 여자아동 49.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학년별로는 6학년이 35.1%로 가장 많았고, 5학년 34.1%, 4학년 30.8%로 나타났다.

<표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학교 소재지 | 읍, 면 | 154 | 51.5 |
| | 시 | 145 | 48.5 |
| 성별 | 남 | 152 | 50.8 |
| | 여 | 147 | 49.2 |
| 학년 | 4학년 | 92 | 30.8 |
| | 5학년 | 102 | 34.1 |
| | 6학년 | 105 | 35.1 |
| 계 | | 299 | 100.0 |

2)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³⁹⁾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39)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광범위한 분야에 데이터입력, 데이터관리, 데이터집계 및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을 목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개발된 종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미국시카고대학에서 1968년 처음 개발된 이

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만들기
기와 꾸미기 활동에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t-test(검증)⁴⁰⁾와 χ^2 (Chi-square)⁴¹⁾,
One-wayANOVA (일원변량분석)⁴²⁾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1) 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① 미술과 연수 경험

〈표-8〉 미술과 연수 경험

| 구 분 | | 교육행정 기관 | 사설 학원 | 개인적 연수 | 경험 없음 | 기타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3 (4.9) | 10 (16.4) | - | 47 (77.0) | 1 (1.6) | 61 (35.5) | 14.76 (8) | 0.064 |
| | 11년~20년 | 3 (4.5) | 6 (9.0) | 10 (14.9) | 47 (70.1) | 1 (1.5) | 67 (39.0) | | |
| | 21년 이상 | - | 4 (9.1) | 3 (6.8) | 37 (84.1) | -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3 (3.7) | 9 (11.1) | 5 (6.2) | 62 (76.5) | 2 (2.5) | 81 (47.1) | 2.69 (4) | 0.610 |
| | 고학년 | 3 (3.3) | 11 (12.1) | 8 (8.8) | 69 (75.8) | -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3 (4.6) | 4 (6.2) | 6 (9.2) | 50 (76.9) | 2 (3.1) | 65 (37.8) | 6.76 (4) | 0.149 |
| | 있음 | 3 (2.8) | 16 (15.0) | 7 (6.5) | 81 (75.7) | - | 107 (62.2) | | |
| 계 | | 6 (3.5) | 20 (11.6) | 13 (7.6) | 131 (76.2) | 2 (1.2) | 172 (100.0) | | |

p값⁴³⁾, χ^2 (df)⁴⁴⁾

후로 30년 이상 계속 발전되어 온 통계 프로그램

- 40) t검정(t-test) : 두 집단(ex: 저학년, 고학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며 이는 t분포에 의하여 검증된다.
- 41) 교차분석 (χ^2 : Chi-Square) :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용된다. 교차분석에서 이용되는 통계량은 χ^2 (Chi-Square)로서 이는 기대빈도와 실제빈도 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된다.
- 42) ANOVA(일원변량분석) : 분산을 고려하면서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기법 (3집단 이상일 때, 주로 사용)

교사들의 미술과 연수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경험이 없는 교사가 76.2%로 대부분이었고, 사설학원에서 받은 교사가 11.6%, 개인적인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 7.6%, 교육행정 기관에서 연수받은 교사는 3.5%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담임학년, 연구교과 유무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미술과 연수경험이 없는 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연수를 받은 연수과목

미술과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연수과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서양화를 연수받은 교사가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예 17.9%, 미술과 전 영역 15.4%, 동양화 7.7%, 디자인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양화를 연수받은 교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디자인 분야는 전체 중 1명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연수를 받은 연수과목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미술과 전 영역 | 6 | 15.4 |
| 서양화 | 21 | 53.8 |
| 동양화 | 3 | 7.7 |
| 서예 | 7 | 17.9 |
| 디자인(꾸미기와 만들기) | 1 | 2.6 |
| 기타 | 1 | 2.6 |
| 계 | 39 | 100.0 |

③ 미술수업의 자신 정도

미술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라고 느끼는 교사가 57.6%로 대부분이었고,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교사 33.1% 자신감 있는 교사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술수업을 지도해 나가는데 자신이 별로 없다고 대답한 교사가 90.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

43) p값 : 심각한 오판을 할 확률

→ p값이 .05, .01, .001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44) df -자유도 (Degree of Freedom) : 편차의 합이 0을 충족시키고, 즉 평균을 유지하면서, 자유스럽게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는 사례 수를 말한다.

〈표-10〉 미술수업의 자신 정도

| 구 분 | |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 자신이 없다 | 그저 그렇다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3 (4.9) | 28 (45.9) | 30 (49.2) | 61 (35.5) | 8.50 (4) | 0.075 |
| | 11년~20년 | 9 (13.4) | 18 (26.9) | 40 (59.7) | 67 (39.0) | | |
| | 21년 이상 | 4 (9.1) | 11 (25.0) | 29 (65.9)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10 (12.3) | 26 (32.1) | 45 (45.6) | 81 (47.1) | 1.68 (2) | 0.431 |
| | 고학년 | 6 (6.6) | 31 (34.1) | 54 (59.3)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3 (4.6) | 24 (36.9) | 38 (58.5) | 65 (37.8) | 2.93 (2) | 0.231 |
| | 있음 | 13 (12.1) | 33 (30.8) | 61 (57.0) | 107 (62.2) | | |
| 계 | | 16 (9.3) | 57 (33.1) | 99 (57.6) | 172 (100.0) | | |

④ 미술 수업 시 자신이 없는 이유



〈표-11〉 미술 수업 시 자신이 없는 이유

| 구 분 | | 교육과정 이해 부족과 미술분야에 소질이 없어서 | 재교육의 부족 | 교육참고 자료 및 시설 부족 | 기타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37 (63.8) | 7 (12.1) | 13 (22.4) | 1 (1.7) | 58 (37.2) | 6.45 (6) | 0.375 |
| | 11년~20년 | 31 (53.4) | 11 (19.0) | 14 (24.1) | 2 (3.4) | 58 (37.2) | | |
| | 21년 이상 | 21 (52.5) | 4 (10.0) | 11 (27.5) | 4 (10.0) | 40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43 (60.6) | 8 (11.3) | 13 (18.3) | 7 (9.9) | 71 (45.5) | 11.36 (3) | 0.010 |
| | 고학년 | 46 (54.1) | 14 (16.5) | 25 (29.4) | - | 85 (54.5) | | |
| 연구 교과 | 없음 | 34 (54.8) | 9 (14.5) | 16 (25.8) | 3 (4.8) | 62 (39.7) | 0.22 (3) | 0.975 |
| | 있음 | 55 (58.5) | 13 (13.8) | 22 (23.4) | 4 (4.3) | 94 (60.3) | | |
| 계 | | 89 (57.1) | 22 (14.1) | 38 (24.4) | 7 (4.5) | 156 (100.0) | | |

* p < .05(5)

미술수업에 자신 없어 하는 교사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이해부족과 미술분야에 소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참고자료 및 시설부족 때문에 24.4%, 재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이해부족과 미술분야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미술수업에 자신없어 하는 교사가 많았는데, 특히 고학년 담임 교사보다는 저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⑤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교사들의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 평균이 2.53으로 비교적 미술교과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직경력별로는 11~20년 된 교사가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21년 이상 된 교사, 10년 이하인 교사의 순으로 흥미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으며, 교사들의 교직경력, 담임학년, 연구교과에 따른 큰 차이 없이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미술교과에 비교적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 구 분 | | N | Mean | SD | t(F) | p |
|------|-----------|-----|------|------|-------|-------|
| 교직경력 | 10년 이하 | 61 | 2.43 | 0.67 | 0.99 | 0.375 |
| | 11년 ~ 20년 | 67 | 2.61 | 0.78 | | |
| | 21년 이상 | 44 | 2.55 | 0.82 | | |
| 담임학년 | 저학년 | 81 | 2.54 | 0.76 | 0.23 | 0.817 |
| | 고학년 | 91 | 2.52 | 0.75 | | |
| 연구교과 | 없음 | 65 | 2.48 | 0.59 | -0.77 | 0.443 |
| | 있음 | 107 | 2.56 | 0.84 | | |
| 전 체 | | 172 | 2.53 | 0.75 | | |

t(F)⁴⁶⁾, Mean⁴⁷⁾, SD⁴⁸⁾

45) P < .05: '두 집단이 차이가 있다'의 뜻은, 이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유의확률, 유의성, 조심성, probability)은 5% 이하이다. 나는 '이 판단이 맞다'고 적어도 95% 정도는 자신 있다고 하는 뜻이다.

46) t 값(t-value) : $M1-M2/S$

(여기서 M1과 M2는 표본 평균을 말하며, S는 평균간 차이의 표준오차를 말한다)

47) Mean: 평균을 뜻함.

48) SD: 표준편차를 뜻함.

⑥ 미술과의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물

미술과 지도계획 수립시 이용하는 참고물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교사용 지도서를 이용하는 교사가 52.3%로 가장 많았고, 미술 교과서를 이용하는 교사가 23.8%, 부교재 16.9%, 시도 교육청 안내물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미술과 지도계획 수립시 교사용 지도서를 이용하는 교사가 많았고, 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는 부교재를 더 많이 이용하였고, 저학년 담임교사는 고학년 담임교사보다 미술과 지도계획 수립 시 교사용 지도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고학년 담임교사는 미술교과서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연구교과별로는 연구교과가 없는 교사들은 연구교과가 있는 교사보다 미술과 지도계획 수립시 미술교과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연구교과가 있는 교사는 부교재를 더 많이 이용하였음을 볼 때, 미술과 지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교사용 지도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미술과의 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물

| 구 분 | | 미술 교과서 | 교사용 지도서 | 시, 도 교육청 안내물 | 부교재 (새교실, 교육자료 등) | 자작 자료 | 기타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16 (26.2) | 25 (41.0) | 2 (3.3) | 15 (24.6) | 1 (1.6) | 2 (3.3) | 61 (35.5) | 14.80 (10) | 0.140 |
| | 11년 ~ 20년 | 18 (26.9) | 36 (53.7) | 1 (1.5) | 8 (11.9) | 4 (6.0) | - | 67 (39.0) | | |
| | 21년 이상 | 7 (15.9) | 29 (65.9) | - | 6 (13.6) | 2 (4.5) | -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12 (4.8) | 47 (58.0) | 1 (1.2) | 16 (19.8) | 5 (6.2) | - | 81 (47.1) | 10.61 (5) | 0.060 |
| | 고학년 | 29 (31.9) | 43 (47.3) | 2 (2.2) | 13 (14.3) | 2 (2.2) | 2 (2.2)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19 (29.2) | 34 (52.3) | 1 (1.5) | 9 (13.8) | 2 (3.1) | - | 65 (37.8) | 3.33 (5) | 0.649 |
| | 있음 | 22 (20.6) | 56 (52.3) | 2 (1.9) | 20 (18.7) | 5 (4.7) | 2 (1.9) | 107 (62.2) | | |
| 계 | | 41 (23.8) | 90 (52.3) | 3 (1.7) | 29 (16.9) | 7 (4.1) | 2 (1.2) | 172 (100.0) | | |

⑦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표현 영역

미술수업 영역 중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표현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아동들이 여러 가지 재료로 꾸미기·만들기 영역에 흥미를 느낀다고 인식

하는 교사가 76.7%로 가장 많았고, 조소로 나타내기 영역 12.8%, 그리기 영역 7.0%, 판화로 나타내기 2.9%, 붓글씨로 나타내기 0.6%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교직경력, 담임학년, 연구교과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미술수업 영역 중 아동들이 여러 가지 재료로 꾸미기·만들기 영역에 흥미를 느낀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14〉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표현 영역

| 구 분 | | 그리기 (상상화, 보고 그리기 등) | 여러 가지 재료로 꾸미기, 만들기 | 조소로 나타내기 | 판화로 나타내기 | 붓글씨로 나타내기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5 (8.2) | 45 (73.8) | 8 (13.1) | 3 (4.9) | - | 61 (35.5) | 6.65 (8) | 0.575 |
| | 11년~20년 | 4 (6.0) | 51 (76.1) | 11 (16.4) | 1 (1.5) | - | 67 (39.0) | | |
| | 21년 이상 | 3 (6.8) | 36 (81.8) | 3 (6.8) | 1 (2.3) | 1 (2.3)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5 (6.2) | 68 (84.0) | 6 (7.4) | 1 (1.2) | 1 (1.2) | 81 (47.1) | 7.24 (4) | 0.124 |
| | 고학년 | 7 (7.7) | 64 (70.3) | 16 (17.6) | 4 (4.4) | -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4 (6.2) | 49 (5.4) | 10 (15.4) | 2 (3.1) | - | 65 (37.8) | 1.29 (4) | 0.862 |
| | 있음 | 8 (7.5) | 83 (77.6) | 12 (11.2) | 3 (2.8) | 1 (0.9) | 107 (62.2) | | |
| 계 | | 12 (7.0) | 132 (76.7) | 22 (12.8) | 5 (2.9) | 1 (0.6) | 172 (100.0) | | |

⑧ 아동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재미있게 꾸미기·만들기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선호하는 자료

아동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꾸미기·만들기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선호하는 자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찰흙이나 지점토를 선호하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러 가지 생활주변의 재료 25.6%, 종이 접기나 종이 상자 등의 종이재료 22.7%, 자연물 6.4%, 교과서 참고작품과 같은 재료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보아 교직경력이나 담임학년, 연구교과에 관계없이 교사들은 꾸미기·만들기 작품 표현 자료로서 아동들이 찰흙이나 지점토를 선호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아동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재미있게 꾸미기·만들기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자료

| 구분 | | 찰흙 이나 지점토 | 종이 접기 나 종이 상자 등의 종이 재료 | 자연물 (나뭇잎, 돌, 모래, 나뭇 가지 등) | 여러 가지 생활주변의 재료 (캔, 플라 스틱, 병 등) | 교과서 참고작품 과 같은 재료 | 기타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28 (45.9) | 15 (24.6) | 1 (1.6) | 15 (24.6) | 2 (3.3) | - | 61 (35.5) | 15.80 (10) | 0.106 |
| | 11년~20년 | 24 (35.8) | 14 (20.9) | 8 (11.9) | 21 (31.3) | - | - | 67 (39.0) | | |
| | 21년 이상 | 20 (45.5) | 10 (22.7) | 2 (4.5) | 8 (18.2) | 3 (6.8) | 1 (2.3)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38 (46.9) | 18 (22.2) | 5 (6.2) | 15 (18.5) | 4 (4.9) | 1 (1.2) | 81 (47.1) | 7.24 (5) | 0.203 |
| | 고학년 | 34 (37.4) | 21 (23.1) | 6 (6.6) | 29 (31.9) | 1 (1.1) | -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28 (43.1) | 14 (21.5) | 1 (1.5) | 18 (27.7) | 3 (4.6) | 1 (1.5) | 65 (37.8) | 6.83 (5) | 0.234 |
| | 있음 | 44 (41.1) | 25 (23.4) | 10 (9.3) | 26 (24.3) | 2 (1.9) | - | 107 (62.2) | | |
| 계 | | 72 (41.9) | 39 (22.7) | 11 (6.4) | 44 (25.6) | 5 (2.9) | 1 (0.6) | 172 (100.0) | | |

⑨ 꾸미기·만들기 활동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표-16〉 꾸미기·만들기 활동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 구분 | | 주제에 원인이 있다 | 재료와 기법의 제공에 원인이 있다 | 아동의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 | 교사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2 (3.3) | 42 (68.9) | 6 (9.8) | 11 (18.0) | 61 (35.5) | 4.56 (6) | 0.602 |
| | 11년~20년 | 5 (7.5) | 48 (71.6) | 6 (9.0) | 8 (11.9) | 67 (39.0) | | |
| | 21년 이상 | 2 (4.5) | 27 (61.4) | 8 (18.2) | 7 (15.9)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6 (7.4) | 55 (67.9) | 11 (13.6) | 9 (11.1) | 81 (47.1) | 3.51 (3) | 0.319 |
| | 고학년 | 3 (3.3) | 62 (68.1) | 9 (9.9) | 17 (18.7)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1 (1.5) | 48 (73.8) | 7 (10.8) | 9 (13.8) | 65 (37.8) | 3.42 (3) | 0.331 |
| | 있음 | 8 (7.5) | 69 (64.5) | 13 (12.1) | 17 (15.9) | 107 (62.2) | | |
| 계 | | 9 (5.2) | 117 (68.0) | 20 (11.6) | 26 (15.1) | 172 (100.0) | | |

꾸미기·만들기 활동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제공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교사가 6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15.1%, 아동의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 11.6% 주제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교사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이나 담임학년, 연구교과에 따른 큰 차이 없이 꾸미기·만들기 활동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제공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⑩ 꾸미기·만들기 시간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단계

꾸미기·만들기 시간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단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구상 단계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상 29.7%, 표현 25.0%, 감상 9.3%, 준비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상 후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단계에서의 구체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17〉 꾸미기·만들기 시간에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단계

| 구 분 | | 준비 | 발상 | 구상 | 표현 | 감상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1 (1.6) | 20 (32.8) | 21 (34.4) | 15 (24.6) | 4 (6.6) | 61 (35.5) | 3.05 (8) | 0.931 |
| | 11년~20년 | 3 (4.5) | 20 (29.9) | 19 (28.4) | 18 (26.9) | 7 (10.4) | 67 (39.0) | | |
| | 21년 이상 | 2 (4.5) | 11 (25.0) | 16 (36.4) | 10 (22.7) | 5 (11.4)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3 (3.7) | 21 (25.9) | 30 (37.0) | 20 (24.7) | 7 (8.6) | 81 (47.1) | 1.76 (4) | 0.780 |
| | 고학년 | 3 (3.3) | 30 (33.0) | 26 (28.6) | 23 (25.3) | 9 (9.9)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1 (1.5) | 24 (36.9) | 20 (30.8) | 13 (20.0) | 7 (10.8) | 65 (37.8) | 4.39 (4) | 0.356 |
| | 있음 | 5 (4.7) | 27 (25.2) | 36 (33.6) | 30 (28.0) | 9 (8.4) | 107 (62.2) | | |
| 계 | | 6 (3.5) | 51 (29.7) | 56 (32.6) | 43 (25.0) | 16 (9.3) | 172 (100.0) | | |

⑪ 꾸미기·만들기 학습 지도방법

교사들의 꾸미기·만들기 학습 지도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아

동의 자유분방한 활동에 맡겨 두는 교사가 5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항을 느끼는 아동만 도와준다 21.5%, 표현기술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19.2%, 다른 미술시간과 별로 다름이 없다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8〉 꾸미기·만들기 학습 지도방법

| 구 분 | | 아동의 자유분방한 활동에 맡겨둔다 | 표현 기술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 저항을 느끼는 아동만 도와준다 | 다른 미술시간과 별로 다름이 없다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41 (67.2) | 8 (13.1) | 9 (14.8) | 3 (4.9) | 61 (35.5) | 11.76 (6) | 0.068 |
| | 11년~20년 | 32 (47.8) | 12 (17.9) | 20 (29.9) | 3 (4.5) | 67 (39.0) | | |
| | 21년 이상 | 23 (52.3) | 13 (29.5) | 8 (18.2) | -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40 (49.4) | 19 (23.5) | 18 (22.2) | 4 (4.9) | 81 (47.1) | 3.55 (3) | 0.315 |
| | 고학년 | 56 (61.5) | 14 (15.4) | 19 (20.9) | 2 (2.2)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37 (56.9) | 10 (15.4) | 16 (24.6) | 2 (3.1) | 65 (37.8) | 1.33 (3) | 0.722 |
| | 있음 | 59 (55.1) | 23 (21.5) | 21 (19.6) | 4 (3.7) | 107 (62.2) | | |
| 계 | | 96 (55.8) | 33 (19.2) | 37 (21.5) | 6 (3.5) | 172 (100.0) | | |

교직경력별로는 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는 다른 교사들보다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아동의 자유분방한 활동에 맡기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반면, 11-20년 된 교사는 저항을 느끼는 아동만 도와주면서, 21년 이상 된 교사는 표현기술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담임교사는 고학년 담임교사보다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표현기술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반면, 고학년 담임교사는 아동의 자유분방한 활동에 맡기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교과별로는 연구교과가 없는 교사는 연구교과가 있는 교사보다 저항을 느끼는 아동만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반면, 연구교과가 있는 교사는 표현기술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도하였다.

교직경력이나 담임학년, 연구교과 유무에 따른 큰 차이 없이 꾸미기·만들기 학습 지도 시 창의성 개발이란 명목으로 아동의 자유분방한 활동에 맡기는 방식으로 미술시간이 지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느껴졌다.

⑫ 교실환경 구성 시 아동들의 참여 권장

교실환경 구성 시 교사들이 아동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교사가 37.2%로 가장 많았고, 거의 대부분 아동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꾸미도록 한다 31.4%, 가끔 필요한 아동만 남겨서 참여하도록 한다 27.9%, 대부분 교사 스스로 환경을 구성한다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교실환경 구성 시 아동들의 참여 권장

| 구 분 | | 거의 대부분 아동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꾸미도록 한다 |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편이다 | 가끔 필요한 아동만 남겨서 참여하도록 한다 | 대부분 교사 스스로 환경을 구성한다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16 (26.2) | 17 (27.9) | 25 (41.0) | 3 (4.9) | 61 (35.5) | 9.66 (6) | 0.140 |
| | 11년 ~20년 | 24 (35.8) | 28 (41.8) | 13 (19.4) | 2 (3.0) | 67 (39.0) | | |
| | 21년 이상 | 14 (31.8) | 19 (43.2) | 10 (22.7) | 1 (2.3)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24 (29.6) | 31 (38.3) | 22 (27.2) | 4 (4.9) | 81 (47.1) | 1.15 (3) | 0.765 |
| | 고학년 | 30 (33.0) | 33 (36.3) | 26 (28.6) | 2 (2.2)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19 (29.2) | 24 (36.9) | 19 (29.2) | 3 (4.6) | 65 (37.8) | 0.60 (3) | 0.895 |
| | 있음 | 35 (32.7) | 40 (37.4) | 29 (27.1) | 3 (2.8) | 107 (62.2) | | |
| 계 | | 54 (31.4) | 64 (37.2) | 48 (27.9) | 6 (3.5) | 172 (100.0) | | |

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교실환경 구성 시 가끔 필요한 아동만 남겨서 참여하도록 하는 반면, 11-20년 된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꾸미도록 하였으며, 21년 이상 된 교사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교사는 고학년 교사보다 교실환경 구성 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게 하는 반면, 고학년 교사는 저학년 교사보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꾸미도록 하였다. 교실환경 구성 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게 하는 교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미술시간 이외의 이런 활동을

권장해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미적인 디자인 감각이 육성되어질 것이라고 보아진다.

⑬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꾸미기·만들기 작품 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꾸미기·만들기 작품 지도를 위해 중요시되는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풍부한 참고작품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현재료의 탐색 22.1%, 표현기법의 지도 20.3%, 전시회 및 감상의 기회확대 15.1%,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직경력별로는 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는 다른 교사보다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꾸미기·만들기 작품 지도 시 표현기법의 지도와 표현재료의 탐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11-20년 된 교사는 전시회 및 감상의 기회 확대가, 21년 이상 된 교사는 풍부한 참고작품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chi^2=17.42, p<.05$)

〈표-20〉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꾸미기·만들기 작품 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 구 분 | | 표현기법 지도 | 풍부한 참고작품 의 제시 | 표현재료 의 탐색 | 전시회 및 감상의 기회확대 |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17 (27.9) | 17 (27.9) | 17 (27.9) | 7 (11.5) | 3 (4.9) | 61 (35.5) | 17.42 [*] (8) | 0.026 |
| | 11년~20년 | 9 (13.4) | 29 (43.3) | 13 (19.4) | 16 (23.9) | - | 67 (39.0) | | |
| | 21년 이상 | 9 (20.5) | 22 (50.0) | 8 (18.2) | 3 (6.8) | 2 (4.5)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20 (24.7) | 37 (45.7) | 12 (14.8) | 10 (12.3) | 2 (2.5) | 81 (47.1) | 7.43 (4) | 0.115 |
| | 고학년 | 15 (16.5) | 31 (34.1) | 26 (28.6) | 16 (17.6) | 3 (3.3)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14 (21.5) | 24 (36.9) | 14 (21.5) | 11 (16.9) | 2 (3.1) | 65 (37.8) | 0.50 (4) | 0.973 |
| | 있음 | 21 (19.6) | 44 (41.1) | 24 (22.4) | 15 (14.0) | 3 (2.8) | 107 (62.2) | | |
| 계 | | 35 (20.3) | 68 (39.5) | 38 (22.1) | 26 (15.1) | 5 (2.9) | 172 (100.0) | | |

이상과 같이 경력이 21년 이상 된 교사의 경우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꾸미기·만들기 작품 지도를 위해서는 풍부한 참고작품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

가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간의 우수작품 교류, 교사간의 교류, 우수작품 스 크랩 등의 많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⑭ 꾸미기·만들기 지도를 위한 연수기회 참여 의사

꾸미기·만들기 지도를 위한 연수기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 체적으로는 참여하겠다는 교사가 6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극 참여하겠다 25.6%, 관심이 없다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인 연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교사의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러 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21> 꾸미기·만들기 지도를 위한 연수기회 참여 의사

| 구 분 | | 적극 참여 하겠다 | 참여 하겠다 | 관심이 없다 | 기타 | 계 | χ^2 (df) | p |
|-------|---------|--------------|---------------|-------------|------------|----------------|---------------|-------|
| 교직 경력 | 10년 이하 | 20 (32.8) | 38 (62.3) | 3 (4.9) | - | 61 (35.5) | 7.45 (6) | 0.282 |
| | 11년~20년 | 15 (22.4) | 48 (71.6) | 3 (4.5) | 1 (1.5) | 67 (39.0) | | |
| | 21년 이상 | 9 (20.5) | 28 (63.6) | 6 (13.6) | 1 (2.3) | 44 (25.6) | | |
| 담임 학년 | 저학년 | 24 (29.6) | 51 (63.0) | 5 (6.2) | 1 (1.2) | 81 (47.1) | 1.38 (3) | 0.709 |
| | 고학년 | 20 (22.0) | 63 (69.2) | 7 (7.7) | 1 (1.1) | 91 (52.9) | | |
| 연구 교과 | 없음 | 15 (23.1) | 47 (72.3) | 3 (4.6) | - | 65 (37.8) | 2.88 (3) | 0.411 |
| | 있음 | 29 (27.1) | 67 (62.6) | 9 (8.4) | 2 (1.9) | 107 (62.2) | | |
| 계 | | 44 (25.6) | 114 (66.3) | 12 (7.0) | 2 (1.2) | 172 (100.0) | | |

⑮ 현행 미술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

현행 미술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담 교사의 필요성을 지적한 교사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 부족, 미술과 연수교육의 기회 부족을 지적한 교사가 각각 17.5%, 다양한 재료 부족, 참고자료의 부족을 지적한 교사가 각각 7.5%, 결과 중시 환경과 미술실의 필요성을 지적한 교사가 각각 5.0%, 아이들의 도구 사용 미숙과 좋은 작품의 학교간 교환 필요성을 지적한 교사가 각각 2.5%로 나타나, 전담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아동의 설문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담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후속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22〉 현행 미술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다양한 재료 부족 | 3 | 7.5 |
| 아이들의 도구사용 미숙 | 1 | 2.5 |
| 전담교사 필요 | 11 | 27.5 |
| 결과 중시 | 2 | 5.0 |
| 감상위주의 교육 필요 | 1 | 2.5 |
| 한 영역에 대한 단계별 집중 지도 필요 | 2 | 5.0 |
| 시간 부족 | 7 | 17.5 |
| 참고자료 부족 | 3 | 7.5 |
| 미술실 필요 | 2 | 5.0 |
| 미술과 연수 교육의 기회 부족 | 7 | 17.5 |
| 좋은 작품의 학교간 교환 필요 | 1 | 2.5 |
| 계 | 40 | 100.0 |

이상으로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꾸미기와 만들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15문항에 의한, 제주도내 교사 172명을 대상으로부터 얻은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교사들의 미술과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교사의 24%에 불과했고, 디자인 연수는 1명(1%)인 실정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들에 대한 미술연수가 시급히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 지도 시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못하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제공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으며, 발상 후 구체적으로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창의성 개발이란 명목 아래 아동의 자유분방한 활동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미술시간이 지도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볼 때 교사들의 미술지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창의적 표현력이 풍부한 디자인 지도를 위해서는 풍부한 참고작품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를 위해서는 학교간의 우수작품 교류, 교사간의 교류, 우수 작품에 대한

스크랩, 인터넷을 통한 작품게시 등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과 연수가 실시된다면 참여하겠다는 교사가 92%이상으로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지식(영어, 과학, 컴퓨터)위주의 연수에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교사의 의견을 좀더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들에게 정서적·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기회 마련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미술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① 미술시간의 선호도

학생들의 미술시간 선호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 평균이 3.56으로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미술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더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미술시간을 좋아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선호하는 정도가 더 높게 보여졌다.

〈표-23〉 미술시간의 선호도

| 구 분 | | N | Mean | SD | t(F) | p |
|-----|------|-----|------|------|---------------------|-------|
| 소재지 | 읍, 면 | 154 | 3.55 | 1.04 | -0.06 | 0.956 |
| | 시 | 145 | 3.56 | 1.03 | | |
| 성별 | 남 | 152 | 3.41 | 1.07 | -2.41 [*] | 0.017 |
| | 여 | 147 | 3.70 | 0.98 | | |
| 학년 | 4학년 | 92 | 3.84 | 1.04 | 7.91 ^{***} | 0.000 |
| | 5학년 | 102 | 3.60 | 0.96 | | |
| | 6학년 | 105 | 3.27 | 1.04 | | |
| 전 체 | | 299 | 3.56 | 1.04 | | |

* p < .05, *** p < .001

② 미술시간에 작품을 만들 때 자신감

미술시간에 작품을 만들 때의 자신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미술시간이 부담이 없어서 자신감이 있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46.5%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미술시간이 부담이 되고 자신감이 별로 없다 28.1%, 미술시간이 매우 좋고 자신이 있다 20.4%, 미술시간이 매우 싫고 자신감이 전혀 없다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은 5, 6학년 학생보다 미술시간을 매우 좋아하고 자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5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미술시간이 부담이 없어서 자신감이 있는 편이라고, 6학년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미술시간이 부담이 되고 자신감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였다. ($\chi^2=25.73$, $p<.001$).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미술시간이 부담이 된다고 인식되어졌는데, 아동의 발달단계(여명기·의사실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4〉 미술시간에 작품을 만들 때 자신감

| 구 분 | | 미술시간이 매우 좋고 자신이 있다 | 미술시간이 부담이 없어서 자신감이 있는 편이다 | 미술시간이 부담이 되고 자신감이 별로 없다 | 미술시간이 매우 싫고 자신감이 전혀 없다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34 (22.1) | 75 (48.7) | 37 (24.0) | 8 (5.2) | 154 (51.5) | 2.66 (3) | 0.447 |
| | 시 | 27 (18.6) | 64 (44.1) | 47 (32.4) | 7 (4.8) | 145 (48.5) | | |
| 성별 | 남 | 32 (21.1) | 71 (46.7) | 40 (26.3) | 9 (5.9) | 152 (50.8) | 0.92 (3) | 0.821 |
| | 여 | 29 (19.7) | 68 (46.3) | 44 (29.9) | 6 (4.1)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33 (35.9) | 40 (43.5) | 15 (16.3) | 4 (4.3) | 92 (30.8) | 25.73*** (6) | 0.000 |
| | 5학년 | 16 (15.7) | 51 (50.0) | 32 (31.4) | 3 (2.9) | 102 (34.1) | | |
| | 6학년 | 12 (11.4) | 48 (45.7) | 37 (35.2) | 8 (7.6) | 105 (35.1) | | |
| 계 | | 61 (20.4) | 139 (46.5) | 84 (28.1) | 15 (5.0) | 299 (100.0) | | |

*** $p<.001$

③ 가장 선호하는 활동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료로 꾸미기·만들기 활동을 선호하는 학생이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리기 25.1%, 붓글씨로 나타내기 7.4%, 판화로 나타내기와 조소로 나타내기가 각각 3.0%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참작하여 미술지도 시 그리기 위주의 미술활동에서 벗어나 아동의 흥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표-25〉 가장 선호하는 활동

| 구 분 | | 그리기 | 꾸미기·만들기 | 판화로 나타내기 | 붓글씨로 나타내기 | 조소로 나타내기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40 (26.0) | 92 (59.7) | 6 (3.9) | 10 (6.5) | 2 (1.3) | 4 (2.6) | 154 (51.5) | 4.39 (5) | 0.495 |
| | 시 | 35 (24.1) | 84 (57.9) | 3 (2.1) | 12 (8.3) | 7 (4.8) | 4 (2.8) | 145 (48.5) | | |
| 성별 | 남 | 42 (27.6) | 85 (55.9) | 3 (2.0) | 11 (7.2) | 7 (4.6) | 4 (2.6) | 152 (50.8) | 4.98 (5) | 0.418 |
| | 여 | 33 (22.4) | 91 (61.9) | 6 (4.1) | 11 (7.5) | 2 (1.4) | 4 (2.7)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27 (29.3) | 53 (57.6) | 2 (2.2) | 9 (9.8) | - | 1 (1.1) | 92 (30.8) | 17.30 (10) | 0.068 |
| | 5학년 | 25 (24.5) | 64 (62.7) | 2 (2.0) | 7 (6.9) | 1 (1.0) | 3 (2.9) | 102 (34.1) | | |
| | 6학년 | 23 (21.9) | 59 (56.2) | 5 (4.8) | 6 (5.7) | 8 (7.6) | 4 (3.8) | 105 (35.1) | | |
| 계 | | 75 (25.1) | 176 (58.9) | 9 (3.0) | 22 (7.4) | 9 (3.0) | 8 (2.7) | 299 (100.0) | | |

④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가장 만족했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경우

〈표-26〉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가장 만족했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경우

| 구 분 | |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 친구의 잘된 작품을 보고 | 교과서, 미술관련 도서·잡지를 보고 | 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21 (13.6) | 18 (11.7) | 43 (27.9) | 68 (44.2) | 4 (2.6) | 154 (51.5) | 7.81 (4) | 0.099 |
| | 시 | 21 (14.5) | 19 (13.1) | 22 (15.2) | 76 (52.4) | 7 (4.8) | 145 (48.5) | | |
| 성별 | 남 | 24 (15.8) | 22 (14.5) | 25 (16.4) | 76 (50.0) | 5 (3.3) | 152 (50.8) | 6.10 (4) | 0.192 |
| | 여 | 18 (12.2) | 15 (10.2) | 40 (27.2) | 68 (46.3) | 6 (4.1)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10 (10.9) | 7 (7.6) | 17 (18.5) | 52 (56.5) | 6 (6.5) | 92 (30.8) | 10.34 (8) | 0.242 |
| | 5학년 | 18 (17.6) | 15 (14.7) | 21 (20.6) | 46 (45.1) | 2 (5.0) | 102 (34.1) | | |
| | 6학년 | 14 (13.3) | 15 (14.3) | 27 (25.7) | 46 (43.8) | 3 (2.9) | 105 (35.1) | | |
| 계 | | 42 (14.0) | 37 (12.4) | 65 (21.7) | 144 (48.2) | 11 (3.7) | 299 (100.0) | | |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가장 만족했던 작품을 만들 수 있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었던 학생이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 미술관련 도서나 잡지에 나온 작품을 보고 21.7%,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14.0%, 친구의 잘 된 작품을 보고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교육이 아동의 창의성 개발과 성취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때 앞으로도 교과서나 지도서 위주의 지도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가장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은 재료

학생들이 꾸미기·만들기 재료로써 가장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찰흙이나 지점토가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이 접기나 종이상자 등의 종이재료 28.8%, 여러 가지 생활주변의 재료 14.0%, 자연물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재지별로는 읍, 면에 소재한 학생들은 시에 소재한 학생들보다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종이 접기나 종이상자 등의 재료를 더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반면, 시에 소재한 학생들은 찰흙이나 지점토를 더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였다. ($\chi^2=18.59, p<.01$)

〈표-27〉 가장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은 재료

| 구 분 | | 찰흙이나 지점토 | 종이 접기나 종이상자 등의 종이재료 | 자연물(나무잎, 돌, 모래, 나뭇가지 등) | 생활 주변의 재료(캔, 플라 스틱, 병 등)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62 (40.3) | 58 (37.7) | 4 (2.6) | 25 (16.2) | 5 (3.2) | 154 (51.5) | 18.59 [~] (4) | 0.001 |
| | 시 | 81 (55.9) | 28 (19.3) | 12 (8.3) | 17 (11.7) | 7 (4.8) | 145 (48.5) | | |
| 성별 | 남 | 87 (57.2) | 32 (21.1) | 7 (4.6) | 21 (13.8) | 5 (3.3) | 152 (50.8) | 12.85 [~] (4) | 0.012 |
| | 여 | 56 (38.1) | 54 (36.7) | 9 (6.1) | 21 (14.3) | 7 (4.8)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41 (44.6) | 23 (25.0) | 3 (3.3) | 18 (19.6) | 7 (7.6) | 92 (30.8) | 12.10 (8) | 0.147 |
| | 5학년 | 47 (46.1) | 36 (35.3) | 5 (4.9) | 12 (11.8) | 2 (2.0) | 102 (34.1) | | |
| | 6학년 | 55 (52.4) | 27 (25.7) | 8 (7.6) | 12 (11.4) | 3 (2.9) | 105 (35.1) | | |
| 계 | | 143 (47.8) | 86 (28.8) | 16 (5.4) | 42 (14.0) | 12 (4.0) | 299 (100.0) | | |

* p< .05. ** p< .01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찰흙이나 지점토를 더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반면, 여학생은 종이접기나 종이상자 등의 종이 재료를 더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였다. ($\chi^2=12.85, p<.05$).

꾸미기·만들기 시간의 좋아하는 재료로는 찰흙이나 지점토를 가장 재미있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다양한 재료에의 선택을 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 재료의 성질, 질감, 양감을 이용한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⑥ 꾸미기·만들기 시간의 구상활동(스케치) 방법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학생들의 구상활동 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머리 속으로만 구상하는 학생이 57.5%로 가장 많았고, 종이나 스케치북에 직접 그려보는 학생은 39.5%로 나타났다. 소재지나 성별, 학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머리 속으로만 구상하여 꾸미기·만들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작품활동 전 종이나 스케치북에 자신의 구상내용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28〉 꾸미기·만들기 시간의 구상활동(스케치) 방법

| 구 분 | | 머리 속으로만 구상한다 | 종이나 스케치북에 직접 그려본다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면 | 81 (52.6) | 69 (44.8) | 4 (2.6) | 154 (51.5) | 4.71 (3) | 0.195 |
| | 시 | 91 (62.8) | 49 (33.8) | 5 (3.5) | 145 (48.5) | | |
| 성별 | 남 | 97 (63.8) | 49 (32.2) | 6 (4.0) | 152 (50.8) | 7.62 (3) | 0.054 |
| | 여 | 75 (51.0) | 69 (46.9) | 3 (2.0)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48 (52.2) | 39 (42.4) | 5 (5.4) | 92 (30.8) | 7.00 (6) | 0.321 |
| | 5학년 | 60 (58.8) | 41 (40.2) | 1 (1.0) | 102 (34.1) | | |
| | 6학년 | 64 (61.0) | 68 (36.2) | 3 (2.9) | 105 (35.1) | | |
| 계 | | 172 (57.5) | 118 (39.5) | 9 (3.0) | 299 (100.0) | | |

⑦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작품을 만든다면 가장 재미있는 경우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가장 재미있게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친구들과 협동하여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서 조그맣게 만든다 16.1%, 친구들과 협동하여 조그맣게 만든다 12.0%, 혼자서 커다랗게 만든다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혼자서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5학년은 친구들과 협동하여 커다랗게, 6학년은 혼자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 ($\chi^2=14.81, p<.05$).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친구들과 협동하여 커다랗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다른 학년보다는 5학년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각각 4·5·6학년의 성향이 다음을 볼 수 있다.



〈표-29〉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작품을 만든다면 가장 재미있는 경우

| 구 분 | | 혼자서 조그맣게 만든다 | 혼자서 커다랗게 만든다 | 친구들과 협동 하여 조그맣게 만든다 | 친구들과 협동 하여 커다랗게 만든다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면 | 23 (14.9) | 13 (8.4) | 21 (13.6) | 97 (63.0) | 154 (51.5) | 3.63 (3) | 0.304 |
| | 시 | 25 (17.2) | 21 (14.5) | 15 (10.3) | 84 (57.9) | 145 (48.5) | | |
| 성별 | 남 | 28 (18.4) | 20 (13.2) | 15 (9.9) | 89 (58.6) | 152 (50.8) | 3.36 (3) | 0.339 |
| | 여 | 20 (13.6) | 14 (9.5) | 21 (14.3) | 92 (62.6)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16 (17.4) | 17 (18.5) | 7 (7.6) | 52 (56.5) | 92 (30.8) | 14.81 [*] (6) | 0.022 |
| | 5학년 | 11 (10.8) | 6 (5.9) | 13 (12.7) | 72 (70.6) | 102 (34.1) | | |
| | 6학년 | 21 (20.0) | 11 (10.5) | 16 (15.2) | 57 (54.3) | 105 (35.1) | | |
| 계 | | 48 (16.1) | 34 (11.4) | 36 (12.0) | 181 (60.5) | 299 (100.0) | | |

* $p<.05$

⑧ 미술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같게 만든 경험 정도

학생들이 미술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같게 만든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학생이 64.5%로 가장 많았고, 많이 같게 만드는 학생 21.7%, 거의 대부분 같게 만드는 학생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학년일수록 미술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같게 만든 경험이 더 많은 반면, 4학년 학생들은 5, 6학년 학생들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만든 경험이 더 많았다. ($\chi^2=18.33, p < .01$).

미술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같게 만들기보다 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작품을 만드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30> 미술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같게 만든 경험 정도

| 구 분 | | 거의 대부분 같게 한다 | 많이 있는 편이다 | 주로 내 생각대로 하는 편이다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25 (16.2) | 38 (24.7) | 91 (59.1) | 154 (51.5) | 4.20 (2) | 0.123 |
| | 시 | 16 (11.0) | 27 (18.6) | 102 (70.3) | 145 (48.5) | | |
| 성별 | 남 | 17 (11.2) | 31 (20.4) | 104 (68.4) | 152 (50.8) | 2.42 (2) | 0.299 |
| | 여 | 24 (16.3) | 34 (23.1) | 89 (60.5)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20 (21.7) | 9 (9.8) | 63 (68.5) | 92 (30.8) | 18.33 ^{**} (4) | 0.001 |
| | 5학년 | 14 (13.7) | 24 (23.5) | 64 (62.7) | 102 (34.1) | | |
| | 6학년 | 7 (6.7) | 32 (30.5) | 66 (62.9) | 105 (35.1) | | |
| 계 | | 41 (13.7) | 65 (21.7) | 193 (64.5) | 299 (100.0) | | |

** p < .01

⑨ 미술시간에 희망하는 지도주체

학생들이 미술시간을 지도하는 주체가 누구이기를 바라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전담 선생님 28.1%, 같은 학년 선생님 중 미술을 잘 하는 선생님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미술시간에 희망하는 지도주체

| 구 분 | | 담임 선생님 | 미술전담 선생님 | 같은 학년 선생님 중 미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80 (51.9) | 47 (30.5) | 19 (12.3) | 8 (5.2) | 154 (51.5) | 1.66 (3) | 0.646 |
| | 시 | 81 (55.9) | 37 (25.5) | 16 (11.1) | 11 (7.6) | 145 (48.5) | | |
| 성별 | 남 | 82 (53.9) | 37 (24.3) | 18 (11.8) | 15 (9.9) | 152 (50.8) | 7.56 (3) | 0.056 |
| | 여 | 79 (53.7) | 47 (32.0) | 17 (11.6) | 4 (2.7)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65 (70.7) | 16 (17.4) | 7 (7.6) | 4 (4.3) | 92 (30.8) | 28.07 ^{***} (6) | 0.000 |
| | 5학년 | 44 (43.1) | 30 (29.4) | 22 (21.6) | 6 (5.9) | 102 (34.1) | | |
| | 6학년 | 52 (49.5) | 38 (36.2) | 6 (5.7) | 9 (8.6) | 105 (35.1) | | |
| 계 | | 161 (53.8) | 84 (28.1) | 35 (11.7) | 19 (6.4) | 299 (100.0) | | |

*** p < .001



학년별로는 4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담임 선생님이 미술시간에 지도하기를 더 희망하는 반면, 5학년은 같은 학년 선생님 중 미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 6학년 학생은 미술 전담 선생님이 지도하기를 더 희망하였다. ($\chi^2=28.07$, $p<.001$)

담임 선생님이 미술시간에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5, 6학년 학생보다는 4학년 학생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미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과 미술전담 교사가 지도해 주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많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따른 교사의 연수확대와 교사 편성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⑩ 교실환경 구성 시 참여 정도

교실환경 구성 시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끔 선생님이 몇몇 아동만 남겨서 참여하도록 한다 33.1%,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꾸민다 27.4%, 대부분 선생님 혼자 환경을 구성한다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 면에 소재한 학생들은 시에 소재한 학생들보다 교실환경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가 가끔 있는 반면, 시에 소재한 학생들은 가끔 몇 명만 남아서 참여하였다. ($\chi^2=9.51, p<.05$).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교실환경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끔 몇 명만 남아서 참여하였다. ($\chi^2=11.05, p<.05$).

많은 수의 아동이 교실 환경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미술 정규 수업 이외에 디자인 감각을 기르는 좋은 기회라 인식되어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고,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자신의 손과 감각으로 주위를 꾸밀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디자인 교육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표-32〉 교실 환경 구성 시 참여 정도

| 구 분 | | 거의 대부분 우리가 참여하여 환경을 꾸민다 | 우리가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 가끔 선생님이 몇몇 아동만 남겨서 참여하도록 한다 | 대부분 선생님 혼자 환경을 구성한다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44 (28.6) | 68 (44.2) | 39 (25.3) | 3 (1.9) | 154 (51.5) | 9.51 (3) | 0.023 |
| | 시 | 38 (26.2) | 45 (31.0) | 60 (41.4) | 2 (1.4) | 145 (48.5) | | |
| 성별 | 남 | 36 (23.7) | 71 (46.7) | 42 (27.6) | 3 (2.0) | 152 (50.8) | 11.05 (3) | 0.011 |
| | 여 | 46 (31.3) | 42 (28.6) | 57 (38.8) | 2 (1.4)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25 (27.2) | 39 (42.4) | 25 (27.2) | 3 (3.3) | 92 (30.8) | 10.79 (6) | 0.095 |
| | 5학년 | 28 (27.5) | 43 (42.2) | 29 (28.4) | 2 (2.0) | 102 (34.1) | | |
| | 6학년 | 29 (27.6) | 31 (29.5) | 45 (42.9) | - | 105 (35.1) | | |
| 계 | | 82 (27.4) | 113 (37.8) | 99 (33.1) | 5 (1.7) | 299 (100.0) | | |

* $p < .05$

㉠ 만들기를 다한 후, 작품 보관 방법

만들기를 한 후 작품 보관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 교실에 전시하는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 된 작품만 교실에 전시한다 38.8%, 집에 가져간다 9.0%, 검사만 하고 버린다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품의 우수성에 대한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만든 작품을 모두 다 전시함으로써 아동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미술 교육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33〉 만들기를 다한 후 작품 보관 방법

| 구 분 | | 모두 다 교실에 전시한다 | 잘된 작품만 교실에 전시한다 | 검사만 하고 버린다 | 집에 가져간다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62 (40.3) | 69 (44.8) | 9 (5.8) | 14 (9.1) | 154 (51.5) | 6.02 (3) | 0.111 |
| | 시 | 78 (53.8) | 47 (32.4) | 7 (4.8) | 13 (9.0) | 145 (48.5) | | |
| 성별 | 남 | 70 (46.1) | 54 (35.5) | 9 (5.9) | 19 (12.5) | 152 (50.8) | 5.20 (3) | 0.158 |
| | 여 | 70 (47.6) | 62 (42.2) | 7 (4.8) | 8 (5.4)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39 (42.4) | 38 (42.3) | 5 (5.4) | 10 (10.9) | 92 (30.8) | 5.55 (6) | 0.476 |
| | 5학년 | 57 (55.9) | 34 (33.3) | 4 (3.9) | 7 (6.9) | 102 (34.1) | | |
| | 6학년 | 44 (41.9) | 44 (41.9) | 7 (6.7) | 10 (9.5) | 105 (35.1) | | |
| 계 | | 140 (46.8) | 116 (38.8) | 16 (5.4) | 27 (9.0) | 299 (100.0) | | |

⑫ 부모님이 미술활동 중 중요시하는 부분

〈표-34〉 부모님이 미술 활동 시 중요시 하는 부분

| 구 분 | | 그리기 | 조소 | 꾸미기와 만들기 | 서예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62 (40.3) | 2 (1.3) | 51 (33.1) | 23 (14.9) | 16 (10.4) | 154 (51.5) | 4.42 (4) | 0.353 |
| | 시 | 58 (40.0) | - | 39 (26.9) | 29 (20.0) | 19 (13.1) | 145 (48.5) | | |
| 성별 | 남 | 56 (36.8) | 1 (0.7) | 45 (29.6) | 31 (20.4) | 19 (12.5) | 152 (50.8) | 2.63 (4) | 0.621 |
| | 여 | 64 (43.5) | 1 (0.7) | 45 (30.6) | 21 (14.3) | 16 (10.9)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36 (39.1) | - | 32 (34.8) | 13 (14.1) | 11 (12.0) | 92 (30.8) | 9.32 (8) | 0.316 |
| | 5학년 | 40 (39.2) | 1 (1.0) | 30 (29.4) | 24 (23.5) | 7 (6.9) | 102 (34.1) | | |
| | 6학년 | 44 (41.9) | 1 (1.0) | 28 (26.7) | 15 (14.3) | 17 (16.2) | 105 (35.1) | | |
| 계 | | 120 (40.1) | 2 (0.7) | 90 (30.1) | 52 (17.4) | 35 (11.7) | 299 (100.0) | | |

부모님이 미술활동 중 중요시 것이 어느 부분인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부모님이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40.1%로 가장 많았고, 꾸미기와 만들기 30.1%, 서예 17.4%, 조소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님의 관심과 아동의 의욕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고하여 학부모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적·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⑬ 자신의 공부방 꾸미기 경험 정도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방을 꾸민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꾸민 경험이 가끔 있는 학생이 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혀 꾸며보지 않았다 31.8%, 여러 차례 있다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신의 공부방을 전혀 꾸며보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hi^2=8.51, p<.05$).

자신의 공부방을 꾸며본 경험이 가끔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신의 공부방을 꾸며본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35〉 자신의 공부방 꾸미기 경험 정도

| 구분 | | 여러 차례 있다 (5회 이상) | 가끔 있다 (1~3회) | 전혀 꾸며보지 않았다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면 | 31 (20.1) | 79 (51.3) | 44 (28.6) | 154 (51.5) | 1.57 (2) | 0.457 |
| | 시 | 25 (17.2) | 69 (47.6) | 51 (35.2) | 145 (48.5) | | |
| 성별 | 남 | 19 (12.5) | 78 (51.3) | 55 (36.2) | 152 (50.8) | 8.51* (2) | 0.014 |
| | 여 | 37 (25.2) | 70 (47.6) | 40 (27.2)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17 (20.7) | 46 (50.0) | 27 (29.3) | 92 (30.8) | 7.26 (4) | 0.123 |
| | 5학년 | 22 (21.6) | 55 (53.9) | 25 (24.5) | 102 (34.1) | | |
| | 6학년 | 15 (14.3) | 48 (44.8) | 43 (41.0) | 105 (35.1) | | |
| 계 | | 56 (18.7) | 148 (49.5) | 95 (31.8) | 299 (100.0) | | |

* $p < .05$

⑭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부분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살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그리기 부분에서 상을 받은 학생이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들기 10.7%, 서예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기 부분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만들기 영역이 10% 내외인 것을 볼 때 그리기 위주의 현재 미술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36>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부분

| 구 분 | | 그리기 | 만들기 | 서예 | 기타 | 계 | χ^2 (df) | p |
|-----|------|---------------|--------------|-------------|---------------|----------------|------------------|-------|
| 소재지 | 읍. 면 | 67 (43.5) | 18 (11.7) | 7 (4.5) | 62 (40.3) | 154 (51.5) | 3.81 (4) | 0.433 |
| | 시 | 60 (41.4) | 14 (9.7) | 3 (2.1) | 68 (46.9) | 145 (48.5) | | |
| 성별 | 남 | 53 (34.9) | 19 (12.5) | 7 (4.6) | 73 (48.0) | 152 (50.8) | 8.09 (4) | 0.088 |
| | 여 | 74 (50.3) | 13 (8.8) | 3 (2.0) | 57 (38.7) | 147 (49.2) | | |
| 학년 | 4학년 | 35 (38.0) | 16 (17.4) | 2 (2.2) | 39 (42.4) | 92 (30.8) | 10.61 (8) | 0.225 |
| | 5학년 | 47 (46.1) | 10 (9.8) | 4 (3.9) | 41 (40.2) | 102 (34.1) | | |
| | 6학년 | 45 (42.9) | 6 (5.7) | 4 (3.8) | 50 (47.7) | 105 (35.1) | | |
| 계 | | 127 (42.5) | 32 (10.7) | 10 (3.3) | 130 (43.5) | 299 (100.0) | | |

⑮ 평소 실내 꾸미기나 의상(옷)색깔, 무늬 등에 관심 정도

평소 실내 꾸미기나 의상색깔, 무늬 등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전체 평균이 2.62로 비교적 관심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내 꾸미기나 의상색깔, 무늬 등에 더 관심이 있었으며 많은 차이를 보였다. 평소 아동들이 실내 꾸미기나 의상색깔, 무늬 등에 비교적 많은 관심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는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스크이나 잡지, 컴퓨터 등의 영향을 생각할 때, 아동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색채감각이나 디자인 감각은 현대 생활과 밀접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37〉 평소 실내 꾸미기나 의상(옷)색깔이나 무늬 등에 관심 정도

| 구 분 | | N | Mean | SD | t(F) | p |
|-----|------|-----|------|------|---------------------|-------|
| 소재지 | 읍. 면 | 154 | 2.58 | 0.93 | -0.73 | 0.468 |
| | 시 | 145 | 2.66 | 0.90 | | |
| 성별 | 남 | 152 | 2.47 | 0.96 | -2.75 ^{**} | 0.006 |
| | 여 | 147 | 2.76 | 0.85 | | |
| 학년 | 4학년 | 92 | 2.66 | 0.93 | 0.24 | 0.784 |
| | 5학년 | 102 | 2.62 | 0.91 | | |
| | 6학년 | 105 | 2.57 | 0.92 | | |
| 전 체 | | 299 | 2.62 | 0.92 | | |

** p < .01

이상으로 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15문항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꾸미기와 만들기가 어느 정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미술과 5개 영역 중 가장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는 영역이 꾸미기와 만들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의 구상에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과서나 지도서 위주의 지도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수의 아동이 교실환경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미술 정규수업 이외에도 교육적·사회적인 노력이 합쳐진 가운데서 바람직한 디자인 교육의 방향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인간성 상실, 청소년 문제 등 사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고 작게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은 기계문명에 대응하여 문화 예술적 가치생활을 영위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잘 갖추어진 인간으로 길러져야 한다.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재료나 용구를 잘 다룰 수 있는 기능의 육성은 물론,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표현 용구를 충족시켜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해 주는 산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초등 미술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미술교육을 개관하고 디자인 지도 및 아동의 표현 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서 디자인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서 효과적인 미술교육의 기초자료를 찾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교사의 설문 응답에서의 결과로는

1) 교사들의 미술과 연수 경험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험이 없는 교사가 76.2%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연수를 받은 교사 중에는 서양화연수를 받은 교사가 53.8%, 서예 17.9%, 동양화 7.7%로 그리기 영역에 교사들의 연수 참여 인원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고, 디자인 영역의 연수를 받은 교사는 1명(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교사의 꾸미기·만들기에 대한 연수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83.3%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2) 미술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흥미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미술수업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9.3%로 자신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이유로는 교육과정 이해부족과 미술분야에 소질과 지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고자료 및

시설 부족, 교사의 재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미술지도 영역 중 꾸미기·만들기가 지도하기에 쉽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9.0%로 가장 많았고 그리기, 붓글씨, 조소, 감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 시간상의 문제는 부족하여 다른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68.0%로 전반적으로 지도 시간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교사 자신이 꾸미기·만들기 지도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52.9%로 상당수임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교사가 68.0%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지도력부족, 아동의 표현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5) 꾸미기·만들기 수업 시에는 보통 아동의 자유 분방한 활동에 맡겨두는 교사가 55.8%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교사가 수업 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단계로는 구상 단계라고 인식한 교사가 32.6%로 가장 많았고, 발상, 표현, 감상, 준비단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꾸미기·만들기 작품이 지도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풍부한 작품 제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6) 그 이외 교사들이 제시한 현행 미술교육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전담 교사의 필요성을 지적한 교사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 부족, 미술과 연수교육의 기회 부족, 다양한 재료 부족, 참고 자료의 부족, 결과 중시 환경과 미술실의 필요성, 아이들의 도구사용 미숙과 좋은 작품의 학교간 교환 필요성 등의 순으로 의견을 보였으며, 전담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설문 응답에서의 결과로는

1) 학생들이 미술시간을 선호하는 정도는 3.56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미술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으로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다고 대답한 아동이 많았고,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좋고, 다른 시간보다 자유롭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2) 미술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영역은 꾸미기·만들기가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리기, 붓글씨, 판화, 조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꾸미기·만들기 수업이 좋은 이유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아동

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자신 스스로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아동이 48.2%로 가장 많았다.

3) 학생들의 구상 활동방법을 보면 머리 속으로만 구상하는 아동이 57.5%로 가장 많았고, 꾸미기·만들기 시간에 작품을 만들 경우 전체적으로 친구들과 협동하여 커다랗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동이 60.5%로 가장 많았는데, 6학년으로 갈수록 혼자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아동이 많았다.

4) 미술시간을 누구에게 지도 받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담임선생님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 전담, 같은 학년 중 미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험으로는 그리기 부문이 42.5%, 만들기 10.75, 서예3.3%의 순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리기 편중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5) 꾸미기·만들기 시간 후 작품보관 방법으로는 46.8%가 모든 작품을 교실에 전시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 된 작품만 전시하는 경우,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와 검사만 받고 버리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집에 가져가는 경우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우는 6학년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님이 중요시하는 미술 영역으로는 그리기가 40.1%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6) 평소 실내 꾸미기, 의상 색깔, 옷 무늬 등에의 관심도는 전체 평균이 2.62로 비교적 많은 아동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교실 환경 구성 시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답한 아동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27.4%로 아동들의 참여의욕에 비해 참여비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초등 미술교육에 있어서 디자인 지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 학습을 포함한 미술학습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아동의 표현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면 발상 과정에서 부터가 중요하며, 의욕이나 작업활동은 물리적 환경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주위에는 언제나 손쉽게

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와 풍부한 참고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교사의 노력과 학교의 뒷받침 여하에 달려 있다.

둘째, 미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의 관심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관심과 아동의 의욕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리기 영역이외에도 디자인 영역, 그 이외의 미술활동 영역으로 학부모 교육과 부모의 참여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면 아동의 표현 의욕이 증가하여 좋은 작품으로의 유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미술과 연수 기회 확대가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일년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컴퓨터, 과학 분야의 연수와는 달리 미술과의 연수는 거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술에 대한 교사들의 흥미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자신감이 없는 이유로는 미술분야에 소질과 지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많은 현실에서 자질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미술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다양한 표현 활동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학교·사회 주최의 꾸미기·만들기 대회를 많이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한된 교실에서 교과서나 빈약하고 획일적인 자료에 의해 창의성이란 이름 아래 방입에 가까운 미술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자연 환경을 많이 접하게 하며 다양한 재료의 접근과 표현 방법, 기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탐색과 풍부한 경험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사의 체계적이고 성실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꾸미기·만들기라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사회나 교육 현장에서 그리기만을 중시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꾸미기·만들기 대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와 감상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아동의 솜씨 유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만들고 꾸미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작품을 많이 게시하고 학급이나 학교의 전시회 등을 많이 개최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표현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남의 작품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료를 탐색하게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재발견하고 응용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1996),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6」, 한국교육개발원.
김삼량(1993),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문형준(1996), 「아동미술실기교실」, 미진사.
이규선(1995),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박주영 외 3인(1986), 「미술교육」, 형설출판사.
김영학(1975), 「미술의 교육」, 유서각
정순욱(1974), 「예술교육론」, 교육과학사.
미술교재편찬회(1985), 「아동미술교육」, 학문사.
안영기·김춘일(1990),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김춘일·손영수(1996), 「재미있는 조형놀이」, 미진사.
양경희(1998), 「21C를 위한 열린 아동 미술교육」, 학지사.
윤양희 공저(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해설」, 교육과학사.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이건호(1987), 「디자인 통론」, 유림문화사.
김춘일·손영수(1996), 「재미있는 조형놀이」, 미진사.
정인임·노공근(1993), 「미술교육」, 학문사.
로웬펠드·브리테인(1993),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학지사.
Alex F.Osborn(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E.W.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옮김. 도서출판 예경.
이규선·김동영·전성수(1997),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김봉권(1998), 「미술지도 이렇게 하자 IV」, 미술공론사.
김봉권(1998), 「미술지도 이렇게 하자 V」, 미술공론사.

- 유덕인(1998), 「생각하는 미술」, 교학사.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1995), 「마음을 여는 미술활동」, 도서출판 예경
- 강성오(1997), 「창의적인 교육활동 46가지」, 우리교육.
- 박병기(1998), 「창의성교육의 기반」, 교육과학사.
- 제주도 교육청(2000), 「지식기반의 창의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탐라교육원.

〈논문〉

- 정이운(1999), “미술과에서의 열린 수업 전개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 오홍종(1984),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꾸미기와 만들기 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강수원(1996), “조형능력신장을 위한 국민학교 디자인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문영신(1992), “초등 미술교육에 있어서의 조형표현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대학원
- 정기원(1998), “조형재료의 체험을 통한 입체 표현력 신장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주(1993), “초등학교 미술에서 평면적 작업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원용규(1990), “아동의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민학교 미술수업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박태환(1993), “국민학교 회화지도에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Abstract>

Study of Educating Art Design in Elementary Schools
- Focused on Decorating and Making -

Kim, Jee-Hye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ang-Hee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bring high quality to the human living by rearing children as the whole men. Now, the frontiers among the countries are not meaningful any more as well as the personal competence comes to be more important than in any other ages. The virtual education in Korea, however, allots too much priority to knowledge to memory and rational or scientific works in the elementary school. To protect children living in the 21st century against the danger easy to fall into the fetishism of machine and/or the material civilization, educations should help children to realize the value of cultural and artistic living and lead them to the subjective and comprehensive adults.

In that meaning, the Art education can be a clue not only to satisfy functional uses but also to stimulate the children's desire to express themselves, so that it may develop their potentiality and creativeness latent. Art Design(Decorating and Making) is a creative activity to plan and make things destined to satisfy both usefulness and aesthetic taste. It is deep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human-being's lives and their civilization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longing in upper grades, referring to their creativeness and various experience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ideal ways for Art lessons and the reasons to expand the chances of expressional activities. 299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longing from 4th to 6th grades and 172 of teachers in Jeju province were surveyed for analyzing the actual Art education conditions. The survey came to be base of presenting the ideal ways to teach Art Design at Art lessons in elementary schools.

First, teachers as well as school authorities themselves have to do their best to prepare the materials for Art lessons containing Design practice. Since children's desire and intention for Art-working activities can easily depend on their physical conditions, enough materials and stuffs for the lessons should be equipped. In other words, the role of teachers and school authorities is the most important to improve children's courage for practical exercise in Art lesson.

Second, the conversion of parents' concern and consciousness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velop the education of Art. The parents' concern and the students' desire are correlated closely. So it is essential for teachers to guide the parents to become interested in the activities of Art works as well as to expand their chance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If so, the results will be greater.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teachers to be trained in many ways. Even though they are greatly interested in Art Design, they actually don't have self-confidence. That's why they think themselves not to have proper ability and teaching skill in that field. If the teachers get enough training for the Art lessons, they will carry out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lessons for children.

Fourth, some contests for decorating and making works have to be quite

activated. Though children are greatly interested in the field of decorating and making, they rarely have chances to exercise their interest in the various ways. In the actual classes, what children are doing is limited to drawing and/or painting with crayons or water colors.

Fifth, a creative environment is to be provided for various expressing activities. But under the name of creativeness, most of Art lessons are virtually let alone without any format. If children often observe the natural environments touching various material stuffs, expressional means and various skills, they will get more successful results from the lessons.

Sixth, children have to get chances to display their works and look around other children's ones also. For instance, the works of children can be displayed on the board of class, or something like that ways. Participating lots of exhibitions among classes or schools can motivate children's desire of expression for themselves as well. Lots of chances for aesthetic experience should be supplied through using effective materials and expressing ways.

Nowadays, as there are increased the countries which are making and choosing the Art textbooks focused absolutely on Craft Art or Design(Cubic Plastic Art), the design education is getting regarded very important. Indeed, the importance is expected to be more and more intensified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nking like that situation, much more researches in this field should be added to the above study. The 21nd century is asking for creativeness and various experiences. The researches for Art lessons to develop children's design abilities in the global community will be a basis to cultiv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children.

15. 여러분은 평소 실내 꾸미기나 의상(옷)색깔이나 무늬 등에 관심이 있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②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관심이 전혀 없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